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63-01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추병완 춘천교육대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 책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추병완 춘천교육대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 I. 통일교육의 변천과 발전

---

- |                   |    |
|-------------------|----|
| 1. 통일교육의 개념 및 역할  | 2  |
| 2.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 5  |
| 3.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 9  |
| 4.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15 |

## II.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

---

- |                       |    |
|-----------------------|----|
| 1.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념     | 24 |
| 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    | 27 |
| 3.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초 | 36 |

## III.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

- |                      |    |
|----------------------|----|
| 1.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본 원리 | 51 |
| 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    | 57 |
| 3.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    | 62 |

# Contents

## VI.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법

---

- |                      |    |
|----------------------|----|
| 1.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 79 |
| 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 | 86 |
- 

- |  |    |
|--|----|
| <b>표 1</b>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 8  |
| <b>표 2</b> 평화 공존 모형의 특징                | 16 |
| <b>표 3</b>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중심 접근 | 17 |
| <b>표 4</b> 문화에 따른 평화의 의미               | 38 |
| <b>표 5</b>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              | 60 |

---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통일교육의 변천과 발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 I



# 1

## 통일교육의 개념 및 역할

**분단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지상 과업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 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그러므로 통일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토와 체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구성원간의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sup>2</sup>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

1. 윤덕희,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과 실천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1(1), 1997, p. 173.

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일반용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07, p. 9.



생활 수 있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 투자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 측면과 더불어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통일 대비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통일 국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 국가의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sup> 오기성은 이러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민족화해교육과 민족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4</sup>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대결 감정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에 기초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이루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룰 때까지의 교육을 뜻한다. 민족통합교육은 제도적 및 영토적 통일, 즉 체제 통합을 이룩한 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이질적 측면을 완화하고 동질성 제고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 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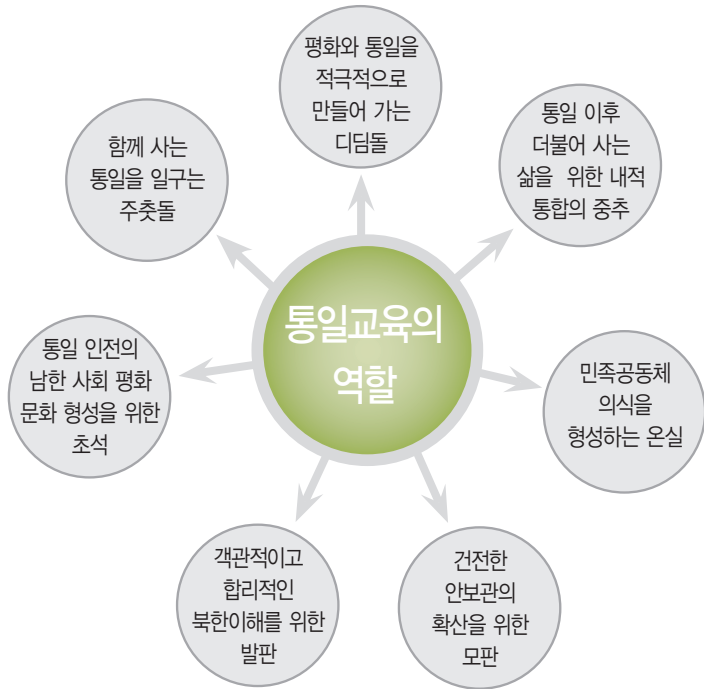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가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제도적 통일 이후에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계도성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합법적인 교육 활동인 것이다.

이렇듯 통일교육은 통일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되지 못하

3. 오일환, “통일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정책과학연구』, 16(1), 2006, p. 32.

4. 오기성, 『통일교육론』, 파주: 양서원, 2005, p. 39.

지만,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도적·체계적인 교육적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평화와 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디딤돌,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을 일구는 주춧돌, 통일 이전의 남한 사회 평화 문화 형성을 위한 초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이해를 위한 발판, 건전한 안보관의 확산을 위한 모판,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온실, 통일 이후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내적 통합의 중추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 2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세부 목표들을 추구한다.<sup>5</sup>

###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주력한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

5. 위의 책, pp. 9-12.

한 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이다.

한편, 통일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핵심적 토대가 민족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장시간의 분단 상황 속에서 형성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통일 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순조롭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안정적인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 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 의식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 상호 대립과 소모적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등 민족적 비극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족의 역량과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낭비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이며 막대한 규모의 분단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통일 한국의 달성은 민족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확장시키며 민족의 번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강조한다.

통일은 맹목적인 의지의 표현만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통일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

조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민족 상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또한,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조화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 역량을 모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남북한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자 역량 제고 방안임을 일깨운다.

### 3 통일환경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 사회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국력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통일 환경의 현주소 및 미래 추세,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안목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편, 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북한의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가 번영과 남북 관계 발전의 초석으로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이해할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과 남북교류 현황, 통일을

위한 과제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표 1.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영역	세부 주제
통일문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의 성격</li> <li>○ 분단의 배경과 폐해</li> <li>○ 통일의 필요성</li> <li>○ 통일의 과정</li> <li>○ 통일국가의 미래상</li> </ul>
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인식</li> <li>○ 북한의 정치·외교</li> <li>○ 북한의 군사</li> <li>○ 북한의 경제</li> <li>○ 북한의 사회·문화</li> <li>○ 북한의 변화와 전망</li> </ul>
통일환경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정세의 변화</li> <li>○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li> </ul>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통일방안</li> <li>○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li> <li>○ 남북교류협력의 현황</li> </ul>
통일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위한 과제</li> </ul>

<sup>6)</sup> 위의 책, p. 13.

## 3

##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의 의미는 그 자체가 역사성을 갖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해방 직후 통일은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자주권 해방운동의 성격을 띠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일은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은 남북한간 상호 이익의 도모는 물론 생활양식과 의식의 동질화를 통한 민족 통합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통일 개념의 변화에 발맞추어 통일교육의 명칭 및 그 내용도 변화하여 왔다.<sup>7</sup>

통일교육은 한반도가 분단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통일교육은 분단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교육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통일안보교육기, 1990년대 초 이후의 통일교육기를 거치며 발달해왔다. 즉, 통일교육은 국내외적 통일 환경과 남북간 역학관계, 통일 정책, 통일 운동, 그리고 국민의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기별로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해왔다.<sup>8</sup>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전의 통일

7. 추병완 외 3인 공저, 『윤리학과 도덕교육2』, 고양: 인간사랑, 2000, p. 483.

8. 고정식 외 6인 공저, 『통일지향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 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12.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각 시기의 통일교육은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나온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반공교육기 (1945~1987)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6·25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식 결집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반공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목표와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정신과 국가 안보의식 고취, 이념적 우월성 등 통일주도 세력의 기반 구축에 통일교육의 일차적 목표를 두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통일정책 홍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대한 이해, 체제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대북 자신감 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반공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 목표 및 내용 면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통일보다는 반공과 안보에 역점을 두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객관적 인식보다 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결의식과 대북 적개심을 키우는 일방적 비판에 치중하였다.<sup>9</sup> 즉, 이 시기의 반공교육은 강한 냉전 의식으로 인한 흑백논리의 기조 속에서 북한의 이념 및 체제적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한편, 우리

9. 위의 책, pp. 12-13.



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는데 주력하였다.<sup>10</sup> 이 시기의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화해, 민족공동체적인 화합을 추구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공교육기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권과 실지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맹목적 통일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된 반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건설 후통일’ 전략에 따라 통일보다는 수세적 반공·안보에 관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대북 자신감에 기반 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소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보다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반공과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중반까지의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반공·안보교육이며 체제수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 2 통일안보교육기 (1987~1991)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 냉전이 완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하였다. 북한도 누적된 체제 모순이 드러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뚜렷

10. 오일환, “통일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정책과학연구』, 16(1), 2006, p. 36.

11.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 14.

해졌다.<sup>12</sup>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강하게 불어 닥친 민주화 운동이 통일운동과 결부되면서 당시 군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되어 온 반공 일변도 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sup>13</sup>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이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반공 일변도의 통일교육이 지양되고, 통일과 화해를 강조하면서 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병행하는 통일안보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은 기존의 반공 일변도의 교육이 지양된 반면, 자유·민주·평화 통일관의 범국민적 확산, 자유사회 이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고취, 국론 통합과 통일 주도 역량의 세력화,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정신 자세 확립,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 등을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sup>14</sup> 이렇듯 통일안보교육은 반공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탈피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북한의 대남 침략과 호전성에 대응하여 체제를 수호하고 안보를 지키려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안보교육 시기에서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위협적인 실체인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지닌 대상으로 여겨졌다.<sup>15</sup>

통일·안보교육은 과거의 일방적 반공·안보 교육의 문제를 극복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교육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교육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남북 공존 및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12. 위의 책, p. 14.

13. 오일환, 앞의 글, p. 38.

14.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글, p. 14.

15. 추병완 외 3인 공저, 앞의 책, p. 488.

가 있었다.

### 3 통일교육기 (1992년~현재)

1990년대에는 통일환경이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나가면서 국제적 차원의 냉전 질서는 해체되었으며, 전후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을 성취하였다. 한반도 상황도 비록 휴전 체제에 종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지각 변동’을 겪게 되었다. 남한은 냉전 질서 하에서 적대적 관계를 가져오던 중국과 1991년, 소련과 1992년 각각 수교를 맺었으며, 1992년에는 북한과 더불어 UN에 가입하였다. 반면 북한은 그 동안 누적된 체제 모순과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말미암아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체제 안전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간 체제의 우열과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남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냉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통일 문제는 구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현의 문제로 다가왔으며, 여기에 그 동안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통일 논의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이제까지 수세적·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보다 공세적·적극적 차원으로 전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층의 낮은 통일문제 관심도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체제적·제도적 접근 못지않게 주민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역사 인식 등 사회문화적 접근을 가미하였으며, 이해 방법도 반공·안보보다는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6</sup>

16\_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p. 15-16.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함과 더불어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한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하는 등 그 내용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sup>17</sup>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시대별로 상이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의 붕괴 및 급격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대비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체제 통합, 과거 청산 방안 등 통일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교육의 대상도 일반 국민보다는 교사와 공무원 등 전문직·행정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흡수통일 배제’ 원칙에 의거, 통일대비 교육보다는 평화·화해·협력 등 남북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남북공존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북 관계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의되었고, 남북간 관계 개선의 변화를 반영한 ‘방북교육’의 등장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17. 오일환, 앞의 글, p. 41.

## 4

##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활발해졌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먼저 한만길은 통일교육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교육의 내용도 체제적·이념적 내용보다 사회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체제 우위 접근' 이라고 칭하면서, 한만길이 주장하는 평화공존 모델의 접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sup>18</sup>

18\_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

표 2. 평화공존 모형의 특징

	체제우위 모형	평화공존 모형
기본 방향	안보·통일 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확인	평화·화해 지향: 평화와 화해·협력 추구
통일 방법	정치·제도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 목표	이념·체제 중심 통일교육	사회·문화 중심 교육
교육 주체	정부 주도	정부·민간 협력 체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체제·이념 중심 -비교 우위적 접근 -일방적 전달	-생활 문화 중심 -객관적 비교와 상호 이해 -개방적 토론
통일관 형성	-제한된 정보 자료 -수동적 참여 -단힌 통일관	-다양한 정보·자료 -능동적 참여 -열린 통일관

한만길의 평화공존 모델은 남북간 적대적 대결 상황과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의 노력이며 또한 기존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본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화공존 그 자체는 통일로 가는 하나의 단계 또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sup>19</sup>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오기성의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중심 접근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 중심의 접근은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보다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의식 구조와 일상적인 삶에 대한 체제와 이념의 기계론적 결정론에 의한 설명보다는, 양자간의 간극에

19\_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 20.

주목하고 체제내적 행위자의 입장에서의 이해를 중시한다. 오기성은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접근을 기존의 체제 중심 접근법과 대별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20</sup>

**표 3.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중심 접근**

	체제 중심의 접근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중심의 접근	
전제	·이념·체제 결정론 ·일방지배모델	·이념·체제의 부분적 결정론 ·상호의존모델	
접근 방법	·체제외적 관찰자적 입장에서 설명 지향	·체제내적 행위자적 입장에서 이해 지향	
가치 지향	·차별에 기초한 체제 우월성	·차이에 기초한 상호 보완성	
주요 관심	·국가, 영토 ·정책, 제도	·행위자와 삶 ·일상적 생활 문화	
내용 요소	통일 문제	통일 정책, 방안에 중점을 두는 체제 통합	의식 및 가치관 포함 생활 세계 통합에 중점
	통일 환경	냉전적 환경 하에서 국제 공조 강조	탈냉전적 환경 하에서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의 조화 강조
	평화 문제	소극적 평화 개념의 군사 안보 차원에 초점	적극적 평화 개념의 인간 안보 차원에 중점
	이념/체제	독재 체제와 주체 사상의 문제점 강조	주민들의 정치 의식에 초점
	경제	자립적 계획 경제 제도의 비효율성 강조	주민들의 경제 생활 및 경제 의식에 초점
	사회	조직 생활 및 통제 메커니즘 강조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의식 구조에 초점
	문화	1인 지배의 도구적 측면과 상대방의 다름 강조	문화의 같음과 다름의 객관적 조망 강조
	교육	교육 제도 및 1인 우상화 관련 교육 강조	학생 및 교사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초점

20\_ 오기성, 앞의 책, p. 138.

	체제 중심의 접근	체제 중심의 접근을 포괄하는 사회 문화 중심의 접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적 평화 강조</li> <li>· 체제상의 통일 강조</li> <li>· 화합보다 지배에 초점</li> <li>· 동질성의 강조</li> <li>· 차별에 기초한 우월성 확인</li> <li>· 자문화중심주의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평화 강조</li> <li>· 삶의 통일 강조</li> <li>· 지배보다 공존 강조</li> <li>· 다양성의 인정</li> <li>· 상호 보완에 기초한 상생 지향</li> <li>· 다문화주의적 접근</li> </ul>

그러나 오기성의 모델은 사회 문화 중심의 접근을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약점이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과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치·제도적 통합과 체제 이념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고립되어 분석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올바른 북한 이해는 북한 사회를 각각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복합적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오기성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초점의 변화, 그리고 과거 우리 사회가 통일교육을 통해 추구해 온 일방적 흐름에 대한 제대로 된 균형 잡기의 시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고정식 외 6인은 통일교육 시기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논의를 검토·종합하여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 패러다임은 교육 내용에서 적극적 통일관의 함양을 지향한다는 점, 실시 체계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점, 접근성 확산으로서 통일 문제를 사회 전반에 전달한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이 패러다임에서는 통일관의 구조를 명료화하여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통일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평화관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이를

21.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 41.



위해 건전한 안보 의식과 평화공존 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북한관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균형된 지식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념관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22</sup>

2000년 이후 제기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 평화·인권의 가치 추구 및 평화 문화 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평화교육적 아이디어를 통일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국민 의식 변화 추진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남한 국민의 평화의식 강화 방안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평화교육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sup>23</sup>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도입될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남한 사회 내부에 의견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거나 우리 일상생활에 만연한 비평화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통일에 있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평화교육이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을 전개할 경우 통일 방안 중심의 통일 논의나 남북 정치 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의 달성을 목표로 하기보다

22. 위의 책, p. 46.

23. 박순성 외 9인 공저,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국민의식변화 추진방안』, 서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2003, p. 173.

는 남한 사회 내에서 혹은 남과 북 사이에 진정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게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sup>24</sup>

통일부는 2007년 통일교육의 기본 추진 방향으로 평화공존 시대를 지향하는 평화교육 강화,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실천적 기본 역량 제고,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 기능 강화, 수요자 지향의 통일교육 실시,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확대 등을 설정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2007년도 통일교육의 중점 추진 과제로서 남북 협력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sup>25</sup>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평화 정착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은 상호 대화와 협력,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 상호 차이의 수용과 관용의 연습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통일의 과정은 남북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 공영하는 문화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은 편견 해소, 상호 존중, 다름의 수용, 갈등 해결, 남북 문화의 공존, 차별 의식 해소, 타협과 양보의 수용 등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평화교육적 접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sup>26</sup> 즉, 평화교육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 우리 안의 반평화적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것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2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내의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 방안 연구』,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 pp. 175-176.

25. 통일부, 『2007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2007, pp. 7-8.

26. 김지수,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본 평화교육의 의의와 한계”, 『교육비평』, 19호, 2005, p. 242.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통일교육 시도들을 무조건 비판하면서 평화교육의 상대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sup>27</sup> 평화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의 한계 혹은 평화교육의 접목 과정에서의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우월성만을 주장하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가 엄격한 성찰과 자기비판을 통해 추진해 온 통일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발상보다는 평화교육을 통해 기존의 통일교육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27. 정상돈,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의 다원화”, (사)통일교육협의회 부설 통일교육연구소 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방안』, 서울: 오름, 2002, p. 69.

---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

II



# 1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념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아이디어와 요소를 적용한 교육을 의미한다. 앞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아이디어와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단체와 개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학자들의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존의 통일교육을 쇄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적인 내용과 방법들이 통일교육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교육학자들의 외부적 비판의 목소리로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으므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통일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입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통일교육의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의 평화교육 자체가 기존의 통일교육에 비

해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부른 대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념 정립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를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평화교육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의 근간이며 통일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용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복합적인 교육 개념이기에, 어느 한 교육의 아이디어와 요소로서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의 개념 및 평화교육의 개념과 유형이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하며,<sup>28</sup> 평화교육적 주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온 교육들과 중첩되고 있어 평화교육만의 고유한 영역 및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 또한 그리 용이하지 않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평화교육 개념을 모든 교육 활동을 포괄하는 일종의 큰 우산(big umbrella)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에,<sup>29</sup> 오히려 개념 파악 및 실천 과정에서의 현실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교육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들을 통일교

28. 평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 갈등해결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환경교육, 개발교육, 다문화교육과 반편견교육, 비폭력교육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띠고 있다. 홍순정, 『평화교육탐구』, 서울: 에피스테메, 2007, p. 28.

29. 예를 들어, 강순원은 우리나라 평화교육은 구조적 모순과 사회 제도로 인해 야기된 왜곡된 의식을 평화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p. 87.

육에 비판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려 깊은 시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통일 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의 다원화를 추구하려는 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또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능성 있는 교육적 시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평화교육적 관점과 내용, 방법론은 통일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기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제사회적 요구

평화문화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요구된다. 198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생명 존중, 자유, 정의, 연대성, 관용, 인권, 양성 평등에 근거한 평화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sup>30</sup> 그리고 1998년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문화를 '폭력을 거부하고, 개인·집단·국가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에 접근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자 시도하는 가치·태도·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 유엔은 '평화문화에 관한 유엔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여덟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을 통한 평화 문

30. UNESCO, *The culture of peace*, Paris: UNESCO, 2002, p. 2.

화 조성,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증대, 양성 평등 보장, 민주적 참여 조장, 이해·관용·연대성의 증진,<sup>31</sup> 참여적 의사소통과 정보·지식의 자유로운 흐름 지원,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 증진. 특히 유엔 총회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 10년’으로 선포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유엔과 유네스코는 교육을 통해 평화 문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sup>32</sup>

##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구상에서 한반도는 유일한 냉전의 잔설 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의 실현은 바로 세계의 반평화적 폭력 중심 구조를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은 한국전쟁 종결 당시의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평화 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정전 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고 전쟁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남북한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긴장 완화, 군비 통제, 평화협정 체결, 평화 체제의 보장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와 문제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평화 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냉전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sup>33</sup>

31\_ *Ibid.*, p. 5.

32\_ *Ibid.*, p. 6.

33\_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동향과 전망』, 66호, 2006. 2., p. 195.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먼저 1단계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초보적 군사적 신뢰 구축 등 평화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핵 문제 해결 이행으로 사실상 북핵 문제가 해결 단계에 들어가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3단계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sup>34</sup> 현 정부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세 가지 단계로 개념화한 바 있다. 그것은 협력적 자주 국방을 통한 평화 유지(peace keeping), 남북한 신뢰 구축 및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peace making), 남북평화체제구축 및 동북아 안보공동체 건설을 통한 평화 구축(peace building)이다.<sup>35</sup> 이렇듯 현 정부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단순히 정치군사적 의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념 대립, 남남 갈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이 시민적 관계성 속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에 대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의식, 태도, 기술을 익히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평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평화 감수성, 갈등해결, 공존, 관용 등의 평화교육적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sup>37</sup>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체

34. 김진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서울: 국정홍보처, 2003, p. 75.

35. 위의 글, pp. 196-197.

36. 민정숙·정영수, “한국사회의 갈등과 평화교육의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1), 2006, p. 79.

37.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p. 7.

제 구축은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 체제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군사문화와 냉전문화의 청산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군사문화와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군사문화와 냉전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군사문화와 냉전문화는 국가나 정치사회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 곳곳에, 심지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의식·무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sup>38</sup>

군사주의(militarism)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공격적 및 경쟁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의 질서는 힘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는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신념 체계이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권위는 사회 통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이끌어내고 행사하는 것 또는 적, 폭도, 범죄자들과 같은 경쟁 상태에 있는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군사주의는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 폭력을 정당화한다.

한편, 남한 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 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 체제와 남북한 간의 대립 구조의 내적인 표현 형태가 냉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를 지녔으며, 탈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보혁갈등, 혹은 남남갈등, 연고주의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군사문화와 냉전문화의 폐해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38. 김귀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22(1), 2006, p. 86.

39.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 225.

하기 위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권위주의적 정체 체제 속에서 만연된 군사 문화와 폭력 문화는 우리 사회의 평화 구현 및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냉전 이데올로기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달을 저해하였다.<sup>40</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사는 연합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단순한 평화 유지(peace keeping)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내재해 있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의 폭력을 다루기 위한 평화 조성(peace making) 전략 및 평화 건설(peace building)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머리 속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타인과의 혹은 북한 동포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장차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다른 국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등의 복잡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속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40. 오성주, 『편견·문화·교육』, 서울: 다산글방, 2002, p. 180.

#### 4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통일 논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비폭력적이고 생태지향적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보편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평화 개념은 우리의 통일 논의 및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분단 체제의 해소를 통한 통일이다. 국토 분단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민족의 재통합을 성취할 때, 우리는 민족적 에너지와 지혜를 보다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통일론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반통일적이다. 통일을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은 평화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sup>41</sup>

한편,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되뇌어 왔을 뿐,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왔다. 특히, 우리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 혹은 회피라는 소극적 의미에서만 파악함으로써 평화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통일교육에서 구현하는 데에 매우 소홀하였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비폭력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분단 구조라는 비평화적 상황이 남북한 사회에 있어서 물리적·구조적 폭력의 형태로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음을 강조해

41. 정상모, 『위기의 한민족, 평화민족주의로 넘는다』, 서울: 풀빛, 2005, p. 240.

야 한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보편적 가치 체계로서의 평화의 이념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 5 과정 중심의 통일 논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과정 중심의 통일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통일을 ‘과정’으로 보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sup>42</sup> 분단 상황에서 고착된 냉전 문화의 탈피,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이 바로 통일의 한 과정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성급하게 1민족 1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떤 이념과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논리에 바탕을 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회의 기존 이념과 가치관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 다른 쪽은 수동적인 동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동시에 주도권을 가진 사회의 내적 모순 구조는 은폐되기가 쉬어진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선 남북한이 오랜 분단 체제 속에서 고착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서로 공존 공영하는 방법을 강조하게 된다. 즉, 통일 정책이나 북한 체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자각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냉전적인 분단 의식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의 창조를 강조하게 된다. 특히, 우리

42. 추병완 외 8인 공저,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p. 16.

사회 내부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의식과 능력의 제고는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한반도 전체의 사회·심리적 갈등 및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sup>43</sup> 그러므로, ‘과정’ 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내부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반복의식·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남북한의 공존공영·화해·협력 문화를 창출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은 바로 평화교육의 이념과 부합하게 된다.

## 6 인간안보의 중요성 인식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통일과 안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놓고 보려는 안이한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보 의식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존 장치이자 조건으로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란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즉, 물리적 폭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모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보 정책을 강화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더욱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하였다. 동족 간의 적대적 대결을 조장함으로써 분단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최근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전이 안보의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인권 침해와 유린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지키자는 것으로서, 이것을 흔히 인간 안보라고 부른다. 인간 안보의 실현은 곧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의미한다.

43. 이근철·오기성,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 2000, p. 56.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인간 안보를 중시하기에 과거와 같은 편협한 안보 개념에서 비롯된 기존 통일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있어서 인간 안보의 개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통일의 실현 과정 및 통일 국가 형성에 있어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안보에 대해 더욱 폭넓고 유연한 자세를 갖게 하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안보와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국가 체제가 요구되며, 국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탐색해 보게 함으로써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제고하는데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독재 정치 체제에 비해 인간 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 안보를 실현하는 통일 국가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초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평화공존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평화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평화지향적 통일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남북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의 형성을 강조한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적 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고 평화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와 태도의 형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분단 극복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에 그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 1 평화주의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의 의미는 사람들마다, 문화마다 다양하기에 평화의 개념은 다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평화의 개념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石田雄은 고대 유태교의 샬롬(shalom), 그리스의 에이레네(eirene), 로마의 파스(pax), 중국의 화평(和平), 일본의 평화(平和), 고대 인도의 산티(Sānti) 등 각각의 문화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개념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살

롬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한 적극적 지향, 에이레네 및 팩스에 있어서의 질서의 강조, 그리고 산티 및 평화(화평)에 있어서의 심적 상태의 중시를 평화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파악하였다.<sup>44</sup>

표 4. 문화에 따른 평화의 의미

문화	평화 지칭 용어	용어의 의미
고대 유대교	샬롬 (shalom)	전쟁이 없는 상태에 덧붙여 행복, 번영, 안전을 의미하며 신의(神意)에 의한 정의의 실현을 뜻함
그리스	에이레네 (eirene)	질서와 통합의 상태를 의미하고 풍부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짐
로마	팩스 (pax)	정복으로 실현한 전쟁이 없는 질서 있는 상태에 덧붙여 정숙(精熟)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관계해서 정신의 평안을 중시함
중국	화평 (和平)	마음의 상태, 가족의 애정 관계에 역점을 두지만, 정치적 질서에 연결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음
일본	평화 (平和)	마음의 상태에 역점을 두고 조화적 질서를 심정적·미적으로 이해하지만 정치적 질서에 연결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음
인도	산티 (Sānti)	혼란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비살생(非殺生)·비폭력의 관념이 있고, 가족의 애정 관계에 역점을 두지만 정치적 조건과는 전혀 무관함

44. 이정희 역, 『평화학』, 서울: 문우사, 1987, p. 212.

그로프(Groff)에 의하면, 평화에 대한 관점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적어도 일곱 가지 측면, 즉 여섯 가지의 외적 평화와 한 가지의 내적 평화를 포함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sup>45</sup>

첫째,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 라는 첫 번째의 관점은 국가 간에 있어서 혹은 내전에 있어서 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법의 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인 및 정치인들에 의해 폭넓게 견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와 같은 강대국의 개입에 의한 지역적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로서 여겨진다. 사실 나머지 여섯 개의 평화에 대한 관점도 전쟁의 부재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관점은 평화를 단지 전쟁의 부재로서만 정의하고 있다.

둘째, 국제 체제에서 ‘세력 균형으로서의 평화’ 이다. 여기서의 평화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역동적인 균형이다. 그리고, 국제 체제에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 전쟁이 발생한다. 국제 체제는 국가 및 국제 정치 조직, 국가 안에서의 국내적인 공적 여론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 균형에 포함된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요인들에서의 후속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셋째, 거시적 수준에서 소극적 평화로서의 평화(전쟁 부재)와 적극적 평화로서의 평화(사회 정의)이다. 갈통(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 개념과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45. L. Groff, "A holistic view of peace education", *Social alternatives*, 21(3), 2002, pp. 7-10.

평화 개념이란 조직화된 집단적 폭력 형태의 부재 혹은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 개념은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평화 개념은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안정시키려는 지배자들의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갈통은 소극적 평화만을 지향하는 평화 연구는 쉽게 권력의 안정화와 현 상태의 견고화를 위한 연구로 되어 버리며, 또한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지배자를 조작하기 위한 연구로 되어버린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갈통은 이러한 소극적 평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개념 정의의 불충분성을 비판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적극적 평화 개념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갈통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사회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갈통은 평화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폭력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는 폭력을 ‘인간에 의한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폭력의 부재로서 이해되던 평화 개념을 ‘인간에 의한 폭력의 부재’와 ‘구조적 폭력의 부재’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이 두 가지 개념을 초기에 그가 사용했었던 소극적 평화 개념 및 적극적 평화 개념과 관련시켰다. ‘인간에 의한 폭력’이란 폭력의 주체와 객체가 분명한 경우이며, ‘구조적 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명한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남편이 그의 아내를 구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에 의한 폭력 혹은 직접적 폭력이다. 그러나 백만의 남편들이 백만의 아내들을 무식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구조적 폭력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층의 평균 수명이 하류층의 평균 수명보다 두 배나 된다면 거기에는 구조적 폭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갈통에게 있어서 구조적 폭력의 부재는 적극적 평화의 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었는데 이것은 권력과 물질의 동등한 분배, 즉 사회 정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 구조적 폭력의 부재는 억압과 착취가 없고 인권과 정의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sup>46</sup>

넷째, 페미니스트적 평화 개념으로서 거시적·미시적 수준 모두에서의 물리적·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강조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 평화 연구자들에 의해 평화에 대한 네 번째의 관점이 나오게 되었다(Brock-Utne, 1989).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는 전쟁처럼 거시적 수준에서 조직화된 폭력뿐만이 아니라 전쟁 상태나 가정에서의 강간과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직화되지 않은 폭력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특정한 개인, 인종 집단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는 개인적·미시적 구조와 거시적 수준 구조,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의 가부장적 태도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적 평화 모델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정에서부터 초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모든 유형의 폭력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이문화간 평화 개념으로서 사람들간의 평화를 강조한다. 문화간 상호작용은 군사적 혹은 경제적으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짓밟거나 제거하는 현상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문화적 폭력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에, 평화 연구자들의 초점이 문화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소극적인 개념(문화적 폭력, 문화적 전쟁)에서 적극적 개념(상이한 인종, 문화, 종교 집단간의 이문화간 평화)으로 바뀌고 있다. 이 적극적 개념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화간 평화는 거시적·미시적 수준에서 문화의 공동 발전을 요구한다. 전체적인 다양한 세계 문화의 융합이 인간다움을 위한 장점으로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식물과 유기체의 풍부한 다양성은 생태계를 위한 하나의 강점으로 여겨진다.

46. 추병완, 『도덕발달과 도덕교육』,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7, p. 146.

여섯째, 전체적인 가이아(Gaia) 평화로서 세계 및 환경과의 평화를 강조한다. 전체적인 가이아 평화는 이전의 평화 유형에 덧붙여 환경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복합적인 생명체로 보고 있고, 인간은 그 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가이아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모든 평화를 그러한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있다. 가이아 평화는 개인과 가정 수준에서 세계적 문화 수준까지 모든 분석 수준에서의 사람들 간의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이아 평화는 인간과 생명·환경 체계와의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과의 평화와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책임이 가이아 평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이아 평화 모델에서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지구의 운명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설정된다.

일곱째, 전체적인 내적·외적 평화이다. 이러한 유형의 평화는 앞서 언급된 평화의 모든 외적 측면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본질적인 구성 요인이자 전제 조건으로서의 내적 평화를 포함하고 있다. 영적인 기반을 둔 평화 이론은 개인부터 환경 수준에 이르기까지 외적 평화의 모든 측면들은 반드시 내적 평화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내적 평화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차원은 평화 연구자의 문화적·종교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평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내적 평화와 관련된 의식의 상이한 차원과 수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평화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평화교육자들은 갈통의 논리를 따르는 가운데 평화의 개념을 전쟁의 부재와 같은 소극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조성된 상태 혹은 사회 정의가 실현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평화교육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의 기회와 평화의 근원뿐만 아니라 반평화와 폭력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사람

들이 평화문화를 위한 행위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술과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sup>47</sup>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나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평화주의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방지와 폭력의 제거를 통해 평화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계발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다름의 인정과 존중, 평화적인 갈등 해결, 관용과 이해, 인권 존중 및 존엄성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 내용과 활동을 중시한다. 나아가 분단 구조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이해하고, 그러한 폭력의 제거를 위한 능동적인 결단과 참여를 중시한다.

## 2 다문화주의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 역시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 문화, 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탈북 현상에 의한 새터민의 증가, 주한 미군을 통한 외국 문화의 접촉, 해외 관광과 유학 등 해외 문화 체험의 확대, TV와 인터넷을 통한 외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확대 등은 한국 사회

47.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p. 16.



를 다문화 사회로 변모시켜 왔다.<sup>48</sup>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상으로 여겨진다. 다문화주의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동등한 공존을 주창하는 이념이자 철학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외면하거나 지배문화에 단순히 동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다문화주의는 중앙집권적 단일 지배 문화에 순응하던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다양한 주변부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인정과 공존을 주창하는 사조이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는 개인들이 가진 차이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가진 개인들에게 그들만의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 속성으로 삼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다문화주의는 수단적 의미로도 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종의 국민 통합 혹은 사회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내는 지도 원리이다.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건서는 다문화주의의 목적을 여섯 가지로 개념화하고 있다.<sup>49</sup> 첫째는 이주자, 원주민, 소수 민족 등의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둘째, 소수 민족이 주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사회 참가와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셋째, 소수 민족 집단과 주류 집단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집단간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넷째, 주류 사회의

48. 추병완,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한국인의 새로운 가치관”, 『도덕윤리과교육』, 24호, 2007, p. 127.

49.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90호, 2003, pp. 44-46.

구성원이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가운데 편견, 선입견, 차별 등을 타파하는 데 있다. 다섯째,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데 있다. 여섯째,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처럼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보장,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 간의 상호 이해 촉진, 소수 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 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극복, 사회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주의가 실현된 사회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단순한 모자이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를 의미한다.

최근 평화교육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주목하면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50</sup>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 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적 삶의 중시이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한국인의 범주에 새로이 포함되는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사고·태도·행동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sup>51</sup>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한다.<sup>52</sup> 나아가 다문화주의는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통일 국가의

50.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pp. 8-9.

51. 오기성, 앞의 책, p. 81.

52.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양: 인간사랑, 2004, p. 141.

구성원으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 3 열린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적으로는 민족 구성원 상호간의 실질적인 동질성 확보와 민족적 통일을 위한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민족 외부적으로는 민족 해방, 나아가서는 민족국가 상호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운동이다.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 상호간의 민주적 동등권, 민족통일, 민족 자주의 쟁취를 목표로 한다.<sup>53</sup> 즉, 민족주의란 스스로 민족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통일, 독립, 자유, 발전, 번영을 지향·추진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흔히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불린다. 주관설은 민족을 심리적·정서적 요소를 중시하는 심리적 동일체로 보는 입장이고, 객관설은 인종·언어·환경·지역·종교·정치경제적 환경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절충설은 민족의 본질을 객관적 요소에 정신적 실재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대체로 절충설의 입장이 민족에 대한 정의로 파악되고 있다.<sup>54</sup>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 분단과 그 산물로 형성된 냉전문화로 인해 민족 구성원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논리가 되지 못하고 정권의 정당화 논리로 변질되어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 남한의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 상호간의 동질성 확보에 실패하였고, 북한의 민족주

53.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연구』, 서울: 당대, 1997, p. 151.

54.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87, pp. 555-556.

의는 민족 구성원의 내적 자율성 확보에 실패하였다.<sup>55</sup> 통일은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족주의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주의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배타적·폐쇄적 성격을 가질 경우 나치즘, 파시즘의 경우처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그 철학적 기초를 열린 민족주의에 두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민주적 참여, 그리고 균등한 복지를 보장하는 통일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닫힌 민족주의는 폐쇄적이며 다른 민족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닫힌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의 불변적 원형을 강조하고 민족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서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열린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평등한 공존을 추구하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란 민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정신이나 생활양식의 공통분모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른 민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원형적 정체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거나 다른 민족 문화를 수용함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변형될 수 있는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열린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주의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이다. 하지만 진정한 열린 민족주의는 안으로도 열려 있는 민족주의이다. 21세기 열린 시대의 민족주의는 타국과의 대립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의 시민사회를 민주화

55. 김국현, 앞의 책, p. 257.

할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가 내의 시민들 상호 관계도 일반적인 자유의 법칙에 따라 평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이다.<sup>56</sup>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혈통을 중시하는 기존의 태도를 완화하고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 한민족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민족 개념을 재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개방성과 포용성, 연대성과 유대감을 갖추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 북한 문화와 외국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증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름을 배제의 조건이 아닌 소통의 통로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것을 강조한다.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관용, 절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세계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여 실천할 것을 중시한다.

56. 박의경, “동북아 협력의 모색과 21세기 한국 민족주의를 위한 제언”,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2006, p. 226.

---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 III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적용하고자 한 기존의 시도는 적용 방안을 이념 및 가치관 측면, 정체성 측면, 방법적 측면, 참여 방식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나<sup>57</sup> 매우 추상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구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원리, 목표, 내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57.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pp. 67-82.





# 1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본 원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교육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들을 통일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사려 깊은 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교육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 평화교육은 사람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모호한 개념이다. 평화교육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적 우산 아래에서 갈등 해결, 중재, 민주시민교육, 공민 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활동이 연구·실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교육은 심적 경향의 변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교육의 목적을 어제의 적에 대한 이해·존중·관용을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평화교육은 다루기 힘든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보스니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평화교육을 일군의 기능들을 함양시키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교육의 목적을 비폭력적인 성향과 갈등 해결 기능을 계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부류의 평화교육은 학교 단위의 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래 중재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로 북미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 3세계 지역에서는 평화교육이 주로 인권 신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평화교육이 환경주의, 군축, 평화 문화의 창달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58</sup>

평화교육을 한국적 관점에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의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환은 평화교육을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려는 교육이며(목적), 평화를 파괴하는 공격성·폭력성·갈등성·편견성 등을 극복하게 돕는 개인·사회·자연·우주적 차원에 걸치는 교육과정을(내용), 정서 순화·역사 의식 배양·사회 개혁에의 참여 의식 고양·고난에의 동참 등을 통해서(방법), 모든 시민과 교사가 모든 교과, 모든 교육의 마당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일련의 통합적 교육으로서(체제), 인류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의 과제(당위성)” 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9</sup> 이삼열은 ‘평화교육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차원과 형태의 교육’ 을 충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0</sup> 한편, 강순원은 평화교육을 인류 공동의 선한 가치인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람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의식적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1</sup>

58.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연구』, 2003년 상반기호, p. 112.

59. 김정환, 『인간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p. 190.

60. 이삼열, “평화의 문화와 교육,” 5·18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사랑방 강좌 강연 원고, 2002년 11월 26일, p. 1.

61. 강순원, “평화교육 방법론,” 『평화의 문화 창조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 연구 자료집』, 이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1, p. 169.

이렇듯 평화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평화교육이 평화로운 개인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평화교육은 타인과 평화롭게 살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회가 기반을 두어야 할 평화로운 가치 추구를 통한 평화문화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즉, 평화교육은 평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고 평화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서 삶 속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기능·가치·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삶의 질서를 방해하는 것들을 조사하여 그것을 평화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현백과 김정수는 평화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양성·관용·공존의 지향, 미래지향성, 참여자 중심의 교육, 문제제기교육, 과정으로서의 평화교육, 예방으로서의 평화교육을 지적한 바 있다.<sup>62</sup>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sup>63</sup>

첫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하나의 지향(orientation)이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하나의 독립 교과나 프로젝트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목적과 교수 방법의 틀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교육적 지향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sup>64</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교과의 목표와 교육 내용 속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여러 교

62.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pp. 25-28.

63. 추병완, 앞의 글, pp. 114-116.

64. Ian Harris, "Challenges for peace educator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cial alternatives*, 21(1), 2002, pp. 28-31.

과에서 제기되는 주제나 이슈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학습하는 일종의 ‘프리즘’을 제공해 준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교사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교과를 가르칠 때, 학교에서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한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는 전통적인 교과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요구되는 주제들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춘 교수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학교는 특별활동을 통하여 현재의 교과 교육을 통해서는 다루어지기 힘든 특수한 주제들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다.

둘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개방적이어야만 하며 교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회의주의,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 열려져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교육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인 것이다.<sup>65</sup> 학생들은 이슈를 평가하는 방법, 대안을 고려하는 방법,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방법,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방성은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발달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치들에 입각하여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이슈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도구를 갖추어 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방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대립적인 가치들의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해 주고, 비평화적 대안들을 거부하는 가운데

65. Betty A. Reardon, "The urgency of peace education: The good news and bad news," available at <http://wwwsoc.nii.ac.jp/psaj/enltx/reardo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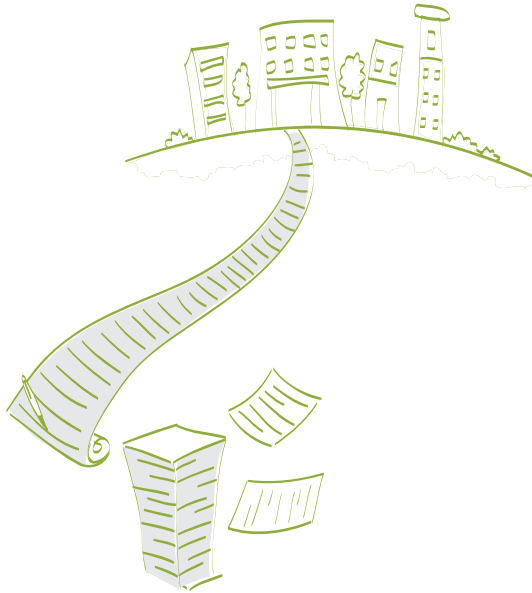
평화적 가치들의 내면화를 촉진시켜 준다.

셋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체험 학습을 필요로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심적 상태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교수 방식은 체험을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체험학습은 가치·태도·지각·기능 및 행동적 경향성의 습득이나 내면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내면화는 단순한 설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기술하는 삶의 조건들 속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규정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학습 풍토는 평화교육의 목적을 반영하는 조건들, 이를테면 관용, 협동, 평화적 갈등 해결, 다문화주의, 비폭력적 환경, 사회적 민감성,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해야만 한다.

넷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열정에 달려 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관점·동기·능력에 달려 있다.<sup>66</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태도·기능 및 행동적 경향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자신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휘태커(Whitaker)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교사의 기능과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감해 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학생의 입장에서 서서 학생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 학생을 개별적이고 독특한 인간으로서 다정하고 사려 깊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66. 이삼열, 앞의 글, p. 7.

믿음이 있어야 한다.<sup>67</sup>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체험 학습의 활용이나 사회적 이슈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기능이 요구된다.<sup>68</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임하는 교사는 가치·태도의 내면화, 체험 학습, 이슈 중심 수업 등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67.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 56.

68. B. A. Reardon,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Jefferson: McFarland, 1988, p. 20.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

**평화교육**은 기존 통일교육의 목표 설정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여기서는 이러한 질문에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기존의 통일교육 목표를 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평화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감각 운동적인 것 외에, 감정적·정서적이며, 사회적·인식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영국의 평화교육 학자인 히스(Hicks)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평화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지식은 갈등 문제, 평화 문제, 전쟁 문제, 핵 문제, 정의 문제, 자아 존중, 성 문제, 인종 문제, 생태학적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은 비판적 사고, 협력, 공감, 단호함, 갈등 해결, 정치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태도는 자아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학적 관심, 열린 마음, 전망,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다.<sup>69</sup>

69. 고병현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 30.

해리스(Harris)는 평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평화 개념의 풍부함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두려움을 다루는 것, 방어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전쟁 행위를 이해하는 것, 이문화간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것, 미래 지향성을 제공하는 것, 평화를 과정으로서 가르치는 것, 사회 정의에 의해 수반되는 평화의 개념을 증진하는 것, 생명에 대한 존중을 조장하는 것,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70</sup>

강순원도 히스와 비슷한 맥락에서 평화교육의 목표를 지식의 영역, 기술의 영역, 자세·가치·태도의 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지식의 영역에는 평화, 계급, 문화, 지역 차별, 전쟁, 핵, 발전, 분단, 민족, 인종 차별, 관용, 성, 인권,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환경, 정의, 제국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의 영역에는 대화, 토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조정과 중재, 타협, 명상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자세·가치·태도의 영역에는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양보, 상호 이해, 수용, 비폭력, 자율, 공동체의식, 생태학적 관심, 미래에 대한 전망, 진리에 대한 헌신, 상생이 포함되어 있다.<sup>71</sup>

이렇듯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지식, 평화에 대한 가치·태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해 아는 것, 느끼고 믿는 것, 실천·행동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황인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목표는 이념과의 관계에서 일치성의 결여, 교육 목표로서 가져야 할 체계성의 결여 및 시대적 조류를 포용하는 포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sup>72</sup> 이

70. 추병완, 앞의 책, 2007, p. 156에서 재인용.

71. 강순원, 앞의 책, p. 90.

72. 황인표, 『도덕교육과 통일교육』, 서울: 울력, 2006, p. 228.



러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초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 및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기능·태도를 함양하고,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목표는 평화문화 형성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의 함양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목표는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문화 형성의 측면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목표는 통일 환경 및 남북한 평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로 국내외 정세를 의미하는 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남북한의 평화 현실, 즉 통일을 저해하는 반평화적 구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자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현행 목표는 안보의 개념을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탈피하여 인간 안보를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

목표 영역	해당되는 대표적 통일교육 목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필요성·당위성 인식</li> <li>○ 평화의 개념 및 평화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li> <li>○ 평화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li> <li>○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li> <li>○ 민족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li> <li>○ 통일 환경에 관한 이해</li> <li>○ 남북한 평화 현실에 관한 이해</li> <li>○ 인간안보에 관한 지식</li> <li>○ 비폭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li> <li>○ 남북한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li> </u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li> <li>○ 비판적·반성적 사고 기능</li> <li>○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li> <li>○ 집단 상호작용 및 사회 참여 능력</li> <li>○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li> <li>○ 대화·토론·타협 기능</li> <li>○ 평화적 상상력</li> <li>○ 공감 및 역할채택 능력</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 개방성, 관용</li> <li>○ 민족공동체 의식</li> <li>○ 생명 및 비폭력 존중</li> <li>○ 지구적 관심</li> <li>○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li> <li>○ 존중과 책임</li> </ul>

이렇게 볼 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이해 능력을 제고하고, 평화지향적 통일관을 확립한다.

둘째,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균형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제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을 고양한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 환경 및 평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평화문화 형성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건전한 안보관을 형성한다.

넷째,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과 숙고를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의지와 실천 동기를 계발한다.





# 3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

**평화교육**은 기존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여기서는 이러한 질문에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현행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교육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전쟁의 억지, 인류 복지의 증대, 기본 인권의 옹호, 생태계의 보존, 기술의 인간화를 제시하였다.<sup>73</sup>

김영주는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sup>74</sup> ① 타인 입장 존중: 나와 타인의 자기 이해, 타인의 생각 존중, 타인 방해하지 않기. ② 협동: 서로 도우며 나누어 일하기, 생각이나 힘을 모아 해결하기, 함께 놀이감 사용하기. ③ 갈등 해결: 타인에 대해 공감하기, 상호 존중하기,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④ 의사소통: 적

73. 이경태, “평화교육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3), 2005, p. 79.

74. 김영주, “유아기 평화교육을 위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1996, p. 37.

극적으로 경청하기, 자신의 생각·욕구를 표현하기.

심성보와 류시관은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를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sup>75</sup> ① 자아개념의 발달: 자아 존중·타인 존중, 자아 권리의 개념·성찰, 자아의 권리·타인의 권리 인식·자율, 행복한 자아. ②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 타인 존중·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상호 이해, 양보, 대화. ③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지적인 영역(객관적 판단 능력, 도덕적 지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진리에 대한 헌신, 다름의 인정), 정의적 영역(공감, 배려, 관용), 행동적 영역(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 민주주의의 실천), 의사소통·경청, 조정과 중재·대화와 토론·타협·갈등과 분쟁 해결. ④ 공감, 감정 이해·절제, 공정성. ⑤ 정체성의 발달: 성 정체성의 발달, 사회적 정체성·계급, 국가적 정체성·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세계적 존재로서의 나, 관계적 존재로서의 나), 인종 차별. ⑥ 통일 능력의 발달: 분단·통일, 민족, 전쟁, 공동체 의식, 다름의 인정, 관용과 포용. ⑦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 생태학적 관심, 공존·상생, 유기체적 관점, 지구적 관점.

한편,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평화교육 내용 체계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76</sup> ① 일상의 평화: 너와나, 가족·학교, 이웃·사회·언론, 생명존중 ② 남북의 평화: 전쟁과 평화, 북한사회·문화 이해하기 1·2, 해외동포이야기, ③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은 하나, 지구촌의 언어, 지구촌의 종교, 나눔, ④ 생태의 평화: 우리는 함께 살아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는 왜 아플까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75. 심성보·류시관,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제16집, 2004, p. 31.

76. 정현백 외 3인 공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교육원, 2001, p. 98.

할 평화교육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제시할 수 있다. ① 개인적 평화를 위한 내용: 인간의 기본권 이해 및 존중, 자기 인식, 자기 존중, 자율성, 감정·정서 조절 및 관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평화 애호 정신. ② 대인 관계적 평화를 위한 내용: 개방성, 의사소통, 타인 이해·존중, 평화적 갈등 해결, 관용, 공감, 배려, 다양성 존중, 양성 평등, 공정한 절차. ③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내용: 분단 상황 인식, 남남·남북 갈등, 민족공동체 의식, 평화 통일. ④ 지구촌 평화를 위한 내용: 비폭력, 정의, 간문화적 이해, 지구 공동체 윤리, 생태적 양심과 정체성, 생명에 대한 경외심, 지구적 공동선, 세계 평화<sup>77</sup>

최근 통일교육원에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의식을 강조하는 평화교육, 남북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북한 이해, 남북한의 같음을 찾아 확대 발전시키는 민족공동체교육, 이익의 개념을 도입한 통일교육, 국익의 차원에서 주변 정세를 보도록 하는 정세 이해, 개방과 국제화의 시대 흐름 인식 제고, 우리의 점진적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 등을 제시하였다.<sup>78</sup>

현행 통일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통일교육원의 새로운 지침을 근거로 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앞으로 중시해야 할 내용 영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77. 추병완, 앞의 책, 2007, p. 160.

78.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와 번영을 향한 힘찬 전진』, 제16기 통일교육위원 특별연찬자료집, 2007. 5., pp. 55-60.

## 1 지구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지구적 관점에서 탈분단, 평화공존, 통일  
 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sup>79</sup> 서독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  
 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지구적인 관점을 내포한  
 평화교육이 독일 통일에 더 유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0</sup>

오늘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토대로 분단을 극복  
 하고 민족공동체로서 생존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  
 명이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  
 거한 통일교육을 중시한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비폭력적,  
 생태 지향적,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실현의 보편적 기반 위에서 실  
 현되어야 한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정신적·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여기  
 서 살기 좋은 사회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실현된 상태로서의 평  
 화에 기반을 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무한경쟁의 원칙하에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 정세를 단순히 친소 관계로만 보려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익의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준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  
 격을 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sup>81</sup>

79. 정현백·김정수, 앞의 책, p. 86.

80. 위의 책, p. 87.

81. 통일부 통일교육원, 앞의 책, p. 62.

## 2 통일의 필요성(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분단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44%의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라고 응답하였다.<sup>82</sup> 과거와 달리 통일의 당위성을 단순한 민족 논리보다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단순히 한 민족, 한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보다는 분단 상태의 지속과 통일 국가 형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강점과 약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우선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우리에게 평화의 이익, 경제적 이익, 신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sup>83</sup>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평화를 제도화시켜 줄 수 있으며,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화를 조성해 줌으로써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통일이 가져올 다양한 형태의 편익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소요되던 비용의 소멸내지는 절감이며, 둘째는 통일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부가 혜택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파급되는 이차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비용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국방비 및 군수 관련 지출의 절감이다. 남한의

82. 고정식 외 6인 공저, 앞의 책, p. 117.

83. 통일부 통일교육원, 앞의 책, pp. 58-59.



2006년도 공식 국방비는 22조 8천억 원으로서 전·해경 및 병무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남한의 방위비는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져서 현 수준의 20% 절감되는 효과만 고려하더라도 연 5조원 가까운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sup>84</sup>

이런 맥락에서, 오기성은 통일교육의 실용주의적 접근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국방비의 감소로 인한 교육 복지 증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우리의 전력 상승,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경의선을 통한 유럽으로의 배낭여행 등 개인 각자에게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운 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85</sup>

그러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지도할 경우 교사는 국방비의 절감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자기 이익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통일로 인한 국방비 절감 효과는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유익한 소재이다. 통일이 이루어져서 국방비의 20%를 절감할 경우 생기는 돈은 5조원을 이라 가정할 경우, 교사는 이 돈을 학생의 교육 복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과거의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한 사회와 주민의 생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구성을 지향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체계와 생활 규범 속에서 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8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p. 148.

85. 오기성, 앞의 책, p. 41.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 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남한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같음을 찾아 확대 발전 시키려는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화간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는 각 나라 문화 및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화의 상호 비교 및 이를 통한 문화와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타문화적 관점에서 자기 문화 조망, 문화간 상호작용을 통한 세계 문화의 개념 형성,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전통 및 자기 문화에 대한 태도 등이 강조되고 있다.<sup>86</sup> 이러한 내용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북한이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을 준다.

첫째, 문화의 다양성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북한 주민의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들 나름의 전통·경험·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문화 비교에서는 남북한의 문화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남북한의 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타문화 관점에서 자기 문화 조망에서는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이나 타문화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를 조망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등의 북한 문화 체험, 새터민과의 대담 등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고 객관적인 이

86. 김현덕, “국제이해교육의 영역과 교육과정”,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역음,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60.

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로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모든 문화는 그 문화 자체의 논리에 따라 그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의 다양화라든가 타문화의 유입 및 습득을 반민족적이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보는 ‘자민족중심주의’ 나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무조건 선진국의 문화만 선호하는 ‘문화적 사대주의’ 를 모두 거부한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한 사회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두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다름을 인정·수용하면서 같음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북한이해교육을 통해 차이 속에서 조화를 찾아내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통일과 안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놓고 보려는 안이한 발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보 의식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존 장치이자 조건으로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안보의 개념과 대상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안보 의식은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환경, 문화 안보와 같은 좀더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서 안보의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군사적 안보에서 덧붙여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 안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었던 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에서는 기존 안보 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인간 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랜 기간동안 안보의 개념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는 것, 외교 정책을 통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 또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것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일상 생활 속에서 안보를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은 제외되었다.”<sup>87</sup>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 안보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아, 질병, 가혹 행위 등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정, 직장,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일상 생활 양식이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안보(예: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② 식량 안보(예: 충분한 식량의 확보), ③ 건강 안보(예: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 ④ 환경 안보(예: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⑤ 개인 안보(예: 고문, 전쟁, 강도, 내란, 마약 남용, 자살 또는 심지어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 ⑥ 공동체 안보(예: 전통 문화의 보존과 종족의 보호), ⑦ 정치적 안보(예: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렇듯 인간 안보는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간 발전을 강화하면서

8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2.

동시에 국가 안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88</sup>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에 있어서 인간 안보의 개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통일의 실현 과정 및 통일 국가 형성에 있어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안보에 대해 폭넓고 유연한 자세를 갖게 하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안보와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국가 체제가 요구되며, 국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탐색해보게 함으로써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제고하는데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독재 정치 체제에 비해 인간 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 안보를 실현하는 통일 국가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평화 능력을 증시하는 통일교육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기 다른 정치 이념을 표방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증오심을 심어 줌으로써 서로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도와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즉, 남한의 반공교육과 북한의 주체사상교육은 성장 세대에 대해 남북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대결하려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치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남한에서 실행된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통일’ 그 자체를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상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평화, 민주주의, 관용, 존중, 차이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단편 지식의 전수를 통해 평

88.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2004, p. 40.

화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웠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실질적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되뇌어 왔을 뿐,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왔다. 특히, 우리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 혹은 회피라는 소극적 의미에서만 파악함으로써 평화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통일교육에서 구현하는 데에 매우 소홀하였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비폭력적으로 공존공영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분단 구조라는 비평화적 상황이 남북한 사회에 있어서 물리적·구조적 폭력의 형태로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안에 존재하는 평화 저해 요인들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이를 해소시켜 나가려는 신념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sup>89)</sup> 이러한 시도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평화의 이념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을 실천하는 장점이 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평화가 직접적인 교육 내용으로 가르쳐지는 것만큼,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의 평화적 분위기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평화교육에서는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비평화적 현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의 행위 능력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89. 한만길, 앞의 책, p. 4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평화교육에서 강조하는 갈등이해 기  
 능과 공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존 능력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통일교육을 통해 학습된 공존 능력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공존 능  
 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외국의 평화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갈등 해  
 결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  
 적·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사회를 이  
 루게 될 때, 사회적인 갈등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 지향적 태도가  
 형성되고 우리의 삶 속에 평화 문화가 확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  
 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 해결 교육에서는 갈등을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본다. 그러나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  
 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 다름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갈등 해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폭  
 력적 갈등 해결의 승리와 패배(win-lose)가 아닌 갈등 당사자들의 건  
 설적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양자의 승리(win-win), 즉 상생  
 적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이 창조적·건설적·평화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폭력적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평화적 갈등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결 교육의 지향점이다. 따  
 라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공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상상력  
 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력은 사물을 그렇게 되는 것이 가  
 능한 것으로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마음의 의도적인 행위로

서 발명, 신기함, 생산성의 원천이다.<sup>90</sup> 상상력은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의 무한함을 지각하고 느끼는 능력이며, 이전에는 거의 인지되지 않았던 어떤 것의 미묘함이나 복잡함을 지각하고 느끼는 능력이다.<sup>91</sup> 평화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 평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통일의 비전을 상상하는 것,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상상하는 것 등은 평화 능력의 함양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통일 한국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복지, 열린 민족주의가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지배하는 가치와 형식으로 구현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배양하고, 평화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 6 민족 공동체 의식을 증시하는 통일교육

민족공동체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공유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물론 남북한 주민은 인종적·언어적 동질성과 오랜 역사적 공통 기반을 간직하고 있으며, 반세기 이상의 이념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통적인 정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족 동질성이란 한민족이 같은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며 사회의 제 영역에서 한민족 고유의 보편적 가치들에 근거한 공동 인식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sup>92</sup> 오랜 역사를 지

90. K. Egan, *Imagin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43.

91. M. Warnock, *Schools of thought*, London: Faber & Faber, 1977, p. 155.

92. 전미영, “남북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 46호, 2006, p. 92.



닌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과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있다. 현재 남북한이 이질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적 두 국가, 두 사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은 그 어떤 사회보다도 상당히 동질적인 사회이다.<sup>93</sup>

하지만 이러한 동일 인종·언어와 역사적 기반 그리고 정서적 구조의 잠재적 공통 기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자칫 비현실적인 당위적 통일론이나 관념적 통일론에 빠지기 쉽다. 현재의 대립적인 정치사회적 요인들을 동질화하고 남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도 장기적인 과업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민족공동체는 이질적인 이념과 가치관, 상이한 생활 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더불어 사는 연합적 삶의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94</sup>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하나의 국가 속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가 아닌 남북한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공유를 넘어서서 규범적 의미를 가진 것이 되어야만 한다. 민족공동체는 뒤르켐(Durkheim)이 말하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인 동시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리고 늘 우리를 포용해 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경제적 우월감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 혹은 이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공존공영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민족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초점

93. 위의 글, p. 93.

94. 이장호, “남북 민족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사회교육”, 『정책과학연구』, 14(2), 2004, p. 10.

을 맞추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다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혼인을 맺는 과정에 비유 될 수 있다. 상이한 배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왔지만 모두 똑 같은 인간이며 같은 동포이다. 따라서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공동선으로 인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역사와 문화 및 전통에 대한 공유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국가에서 민족공동체의 존속 및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의식과 공동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법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 IV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 못지않게 교육의 형태 및 과정 자체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단순히 ‘평화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내용만큼이나 교육 방법도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교육 방법 자체가 평화적일 것을 요구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간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도 배제되어야 한다. 만약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학습자들간의 상호 의사소통이나 상향적 의사소통 및 목적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일방향의 의사소통 형태가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이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억압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다스버그(Dasberg)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학교교육 체제가 온화한 감정 및 평화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그 주된 과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 체제는 학생들에게 규범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95</sup> 이런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및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5. 장원석 외 3인 공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제주: 도서출판 각, 2005, p. 222.



# 1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히스에 의하면** 평화교육은 자신감을 높여주는 참여, 협동 및 대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sup>96</sup> 또한 대부분의 평화교육 학자들은 평화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중심 접근의 학습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 경험, 관심을 갖는다. ② 학생들은 가능한 한 1차 자원(원자료)을 사용한다. ③ 문제해결, 고차원적 사고, 개념과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한다. ④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고, 수행한 일을 평가하며, 배운 것을 되짚어보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 ⑤ 오류와 오해는 학습의 기회로 간주된다. ⑥ 학생들은 배운 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갖고 표현하도록 격려를 받는다. ⑦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는 학습의 지속적인 부분이다.<sup>97</sup>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지도 원칙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sup>98</sup>

96. 위의 책, p. 272.

97. D. S. Flemming, *A teachers guide to project-based learning*, Charleston: AEL, 2000, pp. 4-5.

98. 추병완 외 8인 공저,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pp. 54-56.

## 1 실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학습 흥미 유발

이 원칙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N세대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며 지적·감정적 측면에서 매우 개방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같은 또래의 북한 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 존중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 내용이 학생 자신이 궁금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도 관련이 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는 제시되는 학습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학습 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

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편,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이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의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 및 인구동태, 천연재해, 북한식량생산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big ideas)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3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 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평화교육의 중요한 학습 요소인 공감, 역할채택, 책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비판적·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적인 학습 과제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실 환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모색·논의되어진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



받침되기 전까지는 모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하나의 있음직한 가설이나 추론으로 존중되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 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 4 실천 기회 및 체험 활동 기회 부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와 전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과 체험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한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도서,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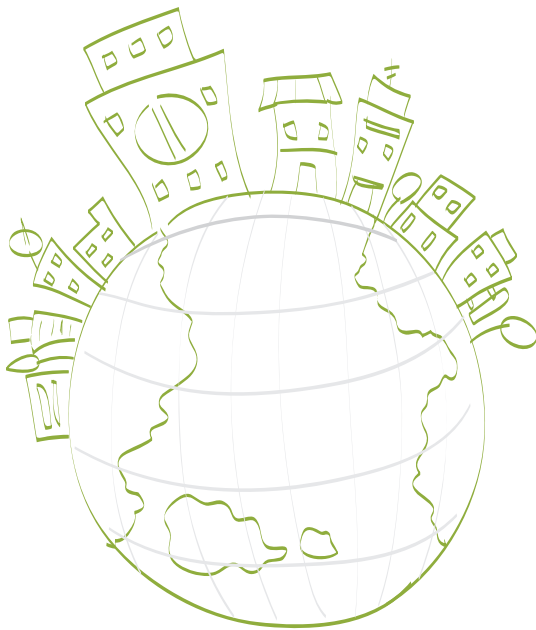
## 5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 활용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 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 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학습 보조 수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 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

를 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N세대의 학습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정보나 낡은 사진 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평화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ICT를 활용해야 한다.



# 2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 및 적용 사례를 제시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평화교육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방법만을 선별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학교 통일교육에 국한하였다.

### 1 프로젝트 방법

던커(Dunker)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주하며, 전문가들이 사전에 준비해 놓은 교육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평화교육에 있어서 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sup>99</sup> 리어든(Reardon)은 현존하는 폭력 성향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군사주의와 성 차별적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변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sup>100</sup> 프로젝트 방법은 군사 문화와 같은 지배적인 사회적 가정에 대해 학생들이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 방법이다. 한편, 그로프

99. 장원석 외 3인 공역, 앞의 책, p. 221.

100. 위의 책, p. 254.

(Groff)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를 소재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평화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1</sup>

프로젝트(project) 방법이란 한 마디로 말해 프로젝트에 의한 혹은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을 의미한다.<sup>102</sup> 여기서 프로젝트란 하나의 토픽(topic)이나 테마(theme)에 대한 심층 연구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서 토픽이나 테마 혹은 쟁점 등에 관한 탐색 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표현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프로젝트 방법은 개별 학생에 의해, 소집단에 의해, 학급 전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2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프로젝트 방법은 학습 대상을 확대하여 주지학습으로 인한 편식 학습을 교정해 주고, 개별 교과가 아닌 통합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학습하는 방법에서도 프로젝트 방법은 탈맥락화된 지식을 실제 맥락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서, 머리로 하는 학습에서 오감을 전부 활용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프로젝트 방법은 조사, 실험,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탐구하는 방법과 기술, 태도 등을 길러주며,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언어, 숫자, 소리, 그림, 입체, 신체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인간이 가진 제반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준다.<sup>103</sup>

프로젝트 학습 방법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sup>104</sup> ①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질문과 흥미에 의하여 생성·

101- L. Groff, *Op. Cit.*, p. 10.

102- 추병완, 『열린 도덕과교육론』, 서울: 하우, 2000, p. 241.

103- 홍후조, “학습의 실제성 증진과 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연구』, 20(1), 2002, p. 176.

104- 서강식, “도덕과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초등도덕교육』, 23집, 2007, pp. 66-67.

선정·운영된다. ② 지역사회 자원, 쟁점, 의사결정 등이 조사 활동의 중심이다. ③ 교사는 촉진자, 협조자,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학문적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된다. 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결과물, 수행, 조사에 초점을 맞춘다. ⑥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을 격려하여 창조적이고, 인지적으로 풍요로우며,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개발하게 한다. ⑦ 프로젝트 학습은 동료 지도, 팀 작업, 소집단 문제해결 형태로 운영된다. ⑧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자기가 한 일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하게 한다. ⑨ 프로젝트 학습은 최신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접속, 교환, 운영, 제시하도록 한다. ⑩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은 교사나 급우들 이외의 청중들과 공유한다. ⑪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전의 조사에서 생긴 의문으로부터 생성된다. ⑫ 프로젝트 학습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기능 발달, 내용 이해, 태도 변화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방법의 실행 절차는 예비 계획 단계, 시작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이루어진다.<sup>105</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남남 갈등’을 주제로 하여 프로젝트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학습 활동 및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예비 계획 단계

- 교사는 마인드맵과 개념 지도를 활용하여 남남 갈등의 의미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 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국어사전을 비롯한 각종 사전을 통하여 갈등의 사전적 정의를 파악한다.
-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남남 갈등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학습할 주제에 대한 주제망을 만든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

105\_ 추병완, 앞의 책, 2000, p. 245.

이 해석하여 인지한 남남 갈등의 의미를 확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진단한다.

- 교사와 학생의 공동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주제망을 사용하여 몇 가지의 큰 아이디어(big ideas)로 분류·정리하고, 각 부류의 아이디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본다(예: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성 차별 등).

### 시작 단계

- 학생들과 함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사례를 이용하여 남남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는 희곡을 만들어서 공연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소집단을 조직한다. 이를테면 소재의 이용 방식에 따라서 교사는 네 개의 소집단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 이 때 교사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소집단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전개 단계

-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적합한 소재를 찾고, 스토리와 대사를 만든다.
- 학생들은 현장 견학이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이 소집단 모임을 가질 때 회의록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각 소집단은 합의를 통해 희곡을 만들고, 만들어진 대본에 따라 연습을 실행한다.

## 정리 단계

- 전체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소집단은 자신들의 희곡을 공연한다.
- 전체 학급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토론,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게 한다. 일례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 남남 갈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다짐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신이나 친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 다음 기회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해 주기 혹은 친구에게 바라는 글을 써주기(rolling paper)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교사는 각 소집단의 회의록, 포트폴리오, 공연 내용 등을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 2 협동학습

일찍이 올포트(Allport)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시한 바 있다. 접촉 가설이란 적대적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상



호작용은 편견과 적대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올포트는 집단간 접촉이 효율적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집단간 접촉을 위한 환경적 지원, 집단간의 동등한 지위, 밀접한 접촉, 협동을 제시한 바 있다.<sup>106</sup>

브록-우트네(Brock-Utne)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은 비판적·분석적 정신과 협동적인 생활 방식을 더욱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긍정적 자아개념, 개인적인 안전감, 협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평화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7</sup>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이러한 요구를 가장 잘 실현시켜 주는 교육 방법이다.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인종적 편견이 줄어들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sup>108</sup> 협동학습과 집단 속에서의 관계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



■ 집단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한 토의 활동

106\_ N. Tal-Or, D. Boninger, & F. Gleicher,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necessary for intergroup contact to reduce prejudice", In G. Salomon & B. Nevo (Eds.), *Peace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p. 90.

107\_ B. Brock-Utne, "Peace educ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Peace Review*, 12(1), 2000, p. 136.

108\_ E. Aronson & D. Bridgeman, "Jigsaw groups and the segregated classroom: In pursuit of common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1979, pp. 438-466.

학습은 학생들의 인종적·문화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동료들 사이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데 탁월한 성과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 주는 미덕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sup>109</sup>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본질적 특성은 한 학생의 성공이 다른 학생들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의 모토는 바로 ‘개인은 집단을 위하여, 집단은 개인을 위하여’ 라고 할 수 있다. 한 학생의 성공이 다른 학생들의 성공 기회를 감소시키는 전통적인 학습 상황과는 달리, 협동학습에서는 개인적 성공과 집단적 성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협동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업 성취는 물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협동학습 상황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집단의 어느 구성원도 성공할 수가 없다. 한편, 협동학습 상황에서는 개인적 책임감이 중시된다.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sup>110</sup>

존슨(Johnson) 형제는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들을 제시한 바 있다.<sup>111</sup> 협동학습의 첫 번째 요소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다. 교사는 명확한 과제와 집단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상의 부침(浮沈)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집단 구성원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그 개인에게 뿐만

109.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4, p. 489.

110. 위의 책, p. 478.

111. 추병완 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협동학습』, 서울: 백의, 2001, pp. 25-28.

아니라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은 협동학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없다면 협동도 없게 된다.

협동학습의 두 번째 요소는 개별 책임과 집단 책임이다. 집단은 목표를 성취할 책임이 있으며, 구성원들은 학습에서 정당한 몫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도 타인의 노력에 편승할 수 없다. 집단은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러한 집단의 목표 성취를 향한 진보와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을 측정해야 한다. 개별 학생들의 수행이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집단과 개인에게 되돌아와서 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많은 도움·지원·격려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때에 개별 책임이 존재하게 된다. 협동학습 집단의 목표는 각각의 구성원들을 더 강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함께 배운 후에 개별적으로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협동학습의 세 번째 요소는 촉진적인 상호작용인데, 그것은 주로 대면적인 것이다. 학생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지원해 주며 서로의 학습 노력을 칭찬해 줌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학습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협동학습 집단은 학문적인 지원 체제인 동시에 개인적인 지원 체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하고 있는 개념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며, 자신의 지식을 동료에게 가르치고, 현재의 학습을 과거의 학습과 연결시킴으로써 서로의 학습을 촉진시켜 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인지적 행위와 개인간 역동성이 발생하게 된다. 서로의 직접 대면 학습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상호 목표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개인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협동학습의 네 번째 요소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필수적인 개인

간 기능과 소집단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다. 협동학습은 본래 경쟁적인 학습이나 개별적인 학습보다 더 복잡한데, 그것은 협동학습이 학생들에게 교과외의 학습 과제와 더불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개인간 기능과 소집단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효율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결정을 내리며,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그렇게 하도록 동기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교사는 팀워크 기능을 학문적인 기능처럼 학생들에게 의도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쳐야 한다. 협동과 갈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구성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와 기능은 학습 집단의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협동학습의 다섯 번째 요소는 집단 분석이다. 집단 분석은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가 얼마나 잘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학습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다. 집단은 구성원들의 행위 중에서 도움이 되는 점과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지속되어야 할 행동과 바뀌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학습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은 구성원들이 함께 협동하여 학습하는 방식과 집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협동학습의 주요 수업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올포트의 접촉 가설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직소(Jigsaw) 방식을 중심으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애론슨(Aronson)이 개발한 직소는 흔히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학습 주제를 소집단 구성원에 따라 나누어 학습 주제에 따라 전문가 집단(expert team)에서 학습한 후 모집단(home team)에 가서 학습한 내용을 나누는 수업 모형이다. 이러한 학습 형태를 직소라고 하는 이유는 모집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직소 퍼즐

(Jigsaw puzzle: 조각난 그림 맞추기 퍼즐)과 같기 때문이다.<sup>112</sup> 직소에서의 학습 활동은 이질적 팀 구성, 개인 과제 선택, 전문가 팀 구성, 전문가 집단 과제 학습, 모집단 협동학습, 팀별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학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교사는 각 소집단을 네 명의 학생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각기 다른 학습 과제(북한의 명절, 북한의 교육제도)를 부여해 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개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주어진 주제별(북한의 명절, 북한의 교육제도)로 학습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전문가 집단의 학습을 마친 후에 학생들은 모집단으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알려준다.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집단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112.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2, p. 176.

전문가 집단 학습지 1

# 북한의 명절

(            ) 학년            (            ) 반            이름 (            )

북한의 대중교통을 주제로 친구들과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1.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조사해 온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  
.....

2. 다음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잘 공부해보세요.

북한의 명절

분단 이후 북쪽에서 명절을 쇠는 방식은 남쪽과 많이 달라졌음.  
 남쪽에서는 예전부터 이어 온 전통을 따라 지금도 음력 정월 초하루와 팔월 한가위를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김. 그러나 북한은 오랫동안 이런 명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2월 16일(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사탕, 과자, 돼지고기등을 배급하여 왔음. 다만 2003년 이후 전통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북한정권을 창건한 9월 9일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도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큰 행사를 조직해야 함. 그 이외에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의 행적을 따라 각종 현지도와 담화 및 교시 발표 몇 돌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행사가 모두 직장과 학교 이외에 자신이 소속한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도 그 행사에 참여 해야함.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은 모두 15일이며, 그 밖에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행사를 갖거나 휴일로 지키는 각종 기념일은 34개 종류가 있음.

3.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  
.....

# 북한의 교육제도

(            )학년            (            )반            이름 (            )

북한의 교육제도를 주제로 친구들과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1.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조사해 온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  
.....

2. 다음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잘 공부해보세요.

**북한의 교육제도**

우리나라의 평범한 학생이라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닌 다음 대학에 진학함.

북한의 취학전 교육기관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음. 유치원을 마치면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소학교는 얼마전까지 인민학교라 불렀는데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함. 남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6년간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어린이들은 소학교에서 4년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만 10살이 되면, 남한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소학교를 졸업하게 됨.

소학교를 졸업하면 얼마 전까지 고등중학교로 불린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한에는 합쳐서 6년으로 되어 있음.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70% 정도가 군에 입대(남자의 경우)하며, 20%는 직장에 배치, 나머지 10%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 임. 직통생은 성분이 확실하고, 성적도 우수해야 함.

남한의 학제와 북한의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두 교육제도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임. 특히 남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와 북한의 소학교-중학교 체제에서 학교 다니는 기간 등을 통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

3.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  
.....

### 3 문화이해지

평화교육자들은 평화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문화의 다양성과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옹호하고 있다.<sup>113</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심리적 화합은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줄 아는 관용의 태도와,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다루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방성을 견지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열린 태도와 사고 능력은 훈련에 의해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sup>114</sup>

문화이해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수십 개 정도 선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하게 하며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는 것이다.<sup>115</sup>

문화이해지의 제작과정은 첫째,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수십 개 정도 선정한다. 둘째, 각각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 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추어 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넷째, 정답을 선택하고, 각 보기가

113. 장원석 외 3인 공역, 앞의 책, p. 256.

114. 정진경,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pp. 367-368.

115. 위의 글, p. 372.



왜 맞거나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다섯째, 작성된 문화이해지를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책자로 제작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갈등 상황의 수집** 남한과 북한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한다. 이 갈등 상황의 선정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소설, 영화나 TV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나 북한 방문기 등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선행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에 나타나는 심층면접 자료도 상황의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사례의 작성** 문화이해지의 형식은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묘사·보기 및 해설을 필요로 한다. 선정된 갈등 상황을 기초로 하여 각 상황마다 사례를 작성한다. 남북한간의 문화이해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황: 남북한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북한사람의 행동을 남한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한다. 상황 묘사가 현실적이고 자세하고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들되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뺀다. 보기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준다. 내용이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길이는 약 10~20줄 정도로 한다.
- 보기: 4지 선다형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는 2줄 정도로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맺는다(‘...때문에’ 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답에는 주로 남한 사람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해설: 정답·오답에 대한 해설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참고문헌에 페이지까지 밝힐 것). 해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가능한 한 자세하게).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된다. 해설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좋다는 것을 넣어도 좋다.

- **작성된 사례의 정당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1차로 작성된 사례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이해지의 작성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나 북한의 실제상황과 맞는지, 그리고 정답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다. 타당화를 위해서는 작성된 사례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보이고 조언을 얻는다든가, 탈북 지식인 몇 사람에게 보이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탈북 지식인들의 지적은 북한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sup>116</sup>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이해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 상황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주는 건강하고 큰 체격의 여학생이다. 그는 평소에 자기가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아무리 말해도, 현주는 거둬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살을 빼려고 애쓰고 옷도 날씬해 보이도록 신경 써서 입고 있다. 올해 현주네 학교가 청진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방학 동안에 한 달간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다. 현주는 북한에 처음 가보는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116. 위의 글, pp. 373-375.

117. 위의 글, pp. 401-402.

을 하였고, 북한 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현주의 짝이 된 영준이라는 남학생이 현주를 힐끗 보며 옆의 남학생에게 “남한 여학생들은 몸집이 좋다. 야!” 라고 하였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무안하고 화가 나서 그 남학생을 쏘아 보았더니 그는 얼른 외면하였다. 그 남학생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 보기

- ① 현주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한 것을 무심코 말한 것이다.
- ② 짓궂어서 남한에서 온 여학생을 놀리려고
- ③ 현주의 체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 ④ 북한 남학생이 교양이 없어서

### 정답

- ③ 현주의 체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 해설

남한에서 여학생들이 TV의 모델들처럼 마른 체격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여성이 좀 더 통통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날씬한 남한 여성들은 북한 남성들이 보기에는 몸이 약해보인다고 한다. 북한 영화를 보면, 여자 배우들이 남한의 배우들보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체격도 마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에는 북한 남자들 사이에 ‘몸나기’, 즉 살찌기 붐이 일어났다. 살집이 좀 있고 배도 좀 나와야 간부처럼 보여서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남한의 학생들이 여자나 남자나 북한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살다운 한 젊은

남자는 “북한에서는 내 키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작게 느껴진다.” 고 하였다. 최근 북한이 여러 해에 걸친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가 심각하여, 이런 차이가 앞으로는 더 벌어질 염려가 있다. 북한의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점을 고려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롱다리’, ‘숏다리’ 니 하는 농담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무례한 일이다. 북한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직선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양쪽 다 지금부터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

### 상황<sup>118</sup>

현주는 오해를 풀고 영준이와 친해지게 되었다. 북한의 가정생활이 궁금하던 차에, 영준이네 집에서 주말에 초대해 주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다. 영준이네 가족과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주는 영준이의 어머니는 의사이고 아버지는 공장의 기술자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현주는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니?” 하고 물어 보았다. 의사와 공장 노동자가 결혼한 것이 신기해서였다. 그러나 영준이는 별 걸 다 물어본다는 듯이 얼른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

### 보기

- ①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 ② 북한에서는 의사와 공장 노동자가 결혼하는 것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라서

118. 위의 책, pp. 403-404.

③ 개인적인 가족사를 물어보는 것이 싫어서

## 정답

② 북한에서는 의사와 공장 노동자가 결혼하는 것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라서

## 해설

남한에서는 의사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고, 의사가 공장 노동자와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보다 직업을 귀천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더 가능하다.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을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지만, 그 벽은 남한처럼 높지 않다.

## 4 가치 명료화

리어든(Reardon)은 평화교육에서 가치 명료화와 가치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적어도 중학교 시기부터 지배적인 사회적 가정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군사주의와 성 차별주의에 주목하였다.<sup>119</sup> 그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과정과 지배적인 가치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교육자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폭력과 억압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즉, 그는 평화교육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들과 관행들에 대한 학생의 반성적·분석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일깨워 주고 있다.

119. 장원석 외 3인 공역, 앞의 책, p. 241.

교육 방법으로서의 가치명료화 방법은 어떤 근거로부터 파생된 절대적인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덕목들의 내용보다는 가치화 과정(valuing process)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화 과정이란 하나의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진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치명료화 방법은 도덕적 의사 결정의 상황적 성격을 믿고 있었기에, 일련의 가치들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한다. 또한, 끊임없이 변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동들은 고정된 일군의 가치들을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가치명료화 방법에 의하면, 가치는 전수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의 내용이나 가치 원칙보다는 과정 혹은 가치화 기능이 가치명료화 접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20</sup>

- 선택: ① 자유롭게, ② 대안들로부터, ③ 각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이후에.
- 존중: ④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선택에 대하여 행복하게 여기기, ⑤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감 있게 말하기.
- 행위: ⑥ 선택한 것에 입각하여 어떤 것을 행하기, ⑦ 생활의 어떤 유형 속에서 반복적으로.

가치명료화에 속하는 다양한 기법들 중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성격에 부합하는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20. 추병완, 앞의 책, 2000, p. 166.

## 가치지 (value sheet)

가치지는 위협적이지 않은 가운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명료화해야 할 문제들로 유도하는 전략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치지 기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유로이, 심사숙고해서 이성적인 선택을 내리고, 그러한 선택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치지는 자극을 주는 지문과 일련의 후속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지문의 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후속 질문들의 목적은 그 문제에서 개별 학생들을 가치명료화 과정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가치화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인 가치지를 완성할 것이 요구된다. 가치지를 이용한 토의 수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다음의 두 가지 입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본 후에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 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너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너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써!' 라고 말한다.
- ②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분리되어 고립될 것이다. 이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운명과 한데 얽혀 있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 고 말한다.
  - 각 입장에 어떤 분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겠는가?
  -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경우, 어떤 입장을 선택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이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 다른 입장을 밝혀보시오.
  - 어떤 교수에 의하면, 사회적 불공평함을 경험한 사람들, 불공정

한 대우를 받은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에 이 말에 찬성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어떤 증거가 있는가?

- 어떤 교수에 의하면,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권력과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찍이 사회적 불공평함을 경험했는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첫 번째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어떤 증거가 있는가?

### 순서 정하기 (ranking order)

순서 정하기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논쟁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으며, 우정에 금이 가지 않게 하는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순서 정하기를 요구하는 상황 장면이 들어 있는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도에 따른 순서를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 이유를 명료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선택 사항과 그 이유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상황에 내재한 도덕적 의미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순서 정하기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입사원 채용하기

○○기업에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 이 기업은 5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근로 조건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하여 10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어 2:1의 입사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만약 당신이 이 기업의 사장이라면 당신은 다음의 10명중 어느 사람을



채용하겠는가? 단, 장애인 특별 고용법에 따라 신입사원 중 10%는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학벌이나 경력, 기존의 사회 통념에 따른 채용 조건은 무시한다.

- 사무 능력이 매우 탁월한 성실한 25세의 여성
-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사춘기 때에 시력을 잃은 30세의 시각 장애인
- 컴퓨터를 매우 잘 다루어 새로운 프로그램도 능숙히 만들어낼 수 있는 18세의 천재 소녀
-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친 후, 또다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려는 40대 남성
- 인생의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업가 출신의 50대 남성
- 여러 번의 자원 봉사활동 경력을 가진 40대의 여성
- 정상인보다 더 우수한 사고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반신 불구의 장애인
- 우리나라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능을 이용한 범죄로 전과 기록이 여러 번 있는 20대의 청년
- 사소한 일로 소년원에 들어온 후, 사회에서의 재기만을 꿈꾸며 자기 계발에 힘썼던 10대 후반의 소녀
- 교통사고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지만, 따뜻한 마음씨로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20대의 여성

## 결과를 예측하기

어떤 일이 전개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게 하는 활동으로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전면 중단하였다.
- 이 세상에 오직 남성만 존재한다.
- 전년도에 비해 남북한이 국방비를 30% 증액하였다.
-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어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 반에 새로 전학을 온 새터민 학생을 북에서 온 촌놈이라고 놀려 주었다.
- 군대에 가기 싫어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근거 없이 무시하였다.
- 어머니가 외국인인 아이에게 혼혈아라고 놀려 주었다.
- 말을 더듬는 친구를 병어리라고 놀려 주었다.
- 취직을 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였다.
-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한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미완성된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주민들을 동포로서 여기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나는 …… 할 것이다.
-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군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외국인을 차별 대우하지 않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중단한다면 …… 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이 매년 열리게 된다면 …… 할 것이다.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일상적인 사고 방법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거침

없이 다양하고 폭넓게 생각함으로써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대개 4~6명으로 구성된 모둠별로 혹은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0~30분간 특정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의를 하고,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 심사하고 알맞은 것을 채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 것,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할 것,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을 것, 이미 제안된 아이디어를 연결·변경·확대·축소·반대·대용·대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것 등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사고력을 키우고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는 수업 상황이나 학습할 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업 상황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다.<sup>121</sup>

즉, 브레인스토밍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방안으로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10분)
-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15분)
- 통일 국가의 국기 모양은? (제한 시간 20분)
-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제한 시간 20분)
- 우리 사회에서 성 차별 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제한 시간 20분)
- 새터민 학생과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제한 시간 15분)
- 우리 교실을 평화로운 교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제한 시간 20분)
- 지구 상에서 전쟁과 테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제한 시간

121. 정창우 외 7인 공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양: 인간사랑, 2007, p.547.

25분)

-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한 시간 15분)
- 폭력 만화나 영화 같은 폭력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15분)
-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한 시간 15분)
-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 관념이나 편견은? (제한 시간 15분)
-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 시간 20분)

### 공적 확인 (public affirmation)

이 방법은 학생이 선택하거나 결정한 어떤 가치 입장 혹은 관점에 대하여 여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에 대해 확신과 존중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화를 주제로 하여 여러 친구들 앞에서 1분 스피치하기
-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방안을 정리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노래 가사를 바꾸어 통일 노래 만들어 부르기
  - 먹고 싶은 북한 음식을 3가지 선정하여 발표하기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3가지 선정하여 발표하기
- 새터민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선정하여 발표해 보기
- 가고 싶은 북한 지역을 5곳 선정하여 발표하기
- 평화통일을 주제로 4행시를 만들어 발표하기
- 대통령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3분 스피치하기
-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낭독해보기
-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사항 3가지를 발표해 보기

- 이성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 자신이 고쳐야 할 점 다섯 가지를 말해보기
-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정하고, 나와 의 약속을 발표해보기

## 5 논쟁 문제 학습

앨저(Alger)는 평화교육은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실천이 지역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의 참여적 평화교육은 대외 정책 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구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sup>122</sup> 리어든(Reardon)은 평화교육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는 현재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추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보았다.<sup>123</sup> 논쟁 문제 학습은 이러한 관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방법이다.

민주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다원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개인과 개인·개인과 집단·집단과 집단 간에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상충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갈등들은 가치나 정책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찬성과 반대가 서로 엇갈린 채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논쟁 문제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결정이 사회의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

122. 장원석 외 3인 공역, 앞의 책, pp. 421-422.

123. 위의 책, p. 253

다.<sup>124</sup> 논쟁 문제 학습은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함양과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훈련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다.<sup>125</sup> 논쟁 문제 학습은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논쟁적인 공공 문제에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지성적 분석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분석 능력을 기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논쟁 문제 학습은 교육 내용으로서 쟁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 문제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교수·학습 방법은 올바른 해답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중요한 문제 탐색 방법을 배워서 공공생활에서 사려 깊은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논쟁 문제 학습 방법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연구하고 사회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며 증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공공의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쟁 문제와 관련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하고,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결과를 예측하고 기본적 가치에 근거하여 갈등의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공의 논쟁 문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논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수·학습 절차는 문제 제기 → 가치 문제의 확인 → 용어와 개념의 명확화 → 사실의 경험적 확인 → 가치 갈등의 해결 → 대안

124. 황홍섭, 『초등 사회과 교수법』, 서울: 세종출판사, 2004, p. 110.

125. 고등사고력(Higher Level Thinking)은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태도와는 달리 질문, 설명, 조직, 해석과 같이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필수로 하며, 문제 해결력,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함한다.

모색 및 결과 예측 → 선택 및 결론으로 이루어진다.<sup>126</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논쟁 문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 문제: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 환경 친화적 개발
- 안보 문제: 주한 미군,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북한 핵 문제
- 인권 문제: 장애인 차별, 성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외국인 근로자 차별, 학생 인권
- 경제 문제: 빈부 격차, 실업, 재벌 규제
- 정치 문제: 사형제 폐지, 사생활 감시, 공권력 남용, 민족주의와 애국심 문제
- 가정 문제: 가정 폭력, 출산율 저하, 노인 부양 문제
- 통일 문제: 대북 경제 지원, 북한 인권 문제, 주적 문제, 통일 비용·분단 비용 문제,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 문제, 남북 이질성·동질성 문제,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 문제

## 6 역할놀이

평화교육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갈등적인 정보와 사회적 딜레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특히 타인의 입장이나 역할을 채택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타인 및 타인의 기저에 놓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은 인종주의, 차별, 괴롭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도구라고 여기고 있다.<sup>127</sup> 역할놀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교육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sup>126</sup> 박상준,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p. 219.

<sup>127</sup> Ilse Hakvoort, "Theorie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eace education," *Social alternatives*, 21(1), 2002, pp. 18-19.

역할놀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흔히 하는 행동 유형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 배경, 감정 등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할놀이는 주어진 환경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놀이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개인 상호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에서 왜 저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원래 역할놀이 방법은 샤프텔 부부(Fannie Shaftel & George Shaftel)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은 20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성실함, 정의감, 애정 등의 민주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일반적으로 역할놀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sup>128</sup>

- 학생들은 인간 상호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범한 문제를 정의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치, 충동, 두려움, 외적인 영향력 등을 깨닫게 된다.
- 학생들은 역할놀이 상황에서 얻은 통찰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생들은 가상적인 상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 의견, 행동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 가상적으로 어떤 역할을 실연해 봄으로써, 문제나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역할놀이 방법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역할놀이 방법은 크게 보아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어떤 단계는 학생들과 반복하거나 복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

128. 추병완, 앞의 책, 2000, pp. 200-203.



다.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의 양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달라진다. 역할놀이의 일반적인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역할놀이의 상황 설정** 역할놀이의 상황은 여러 가지 자료, 즉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생 상호간의 문제, 신문에 실린 최근의 관심사,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상황 등에서 얻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교사가 상황을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학생들도 제안할 수 있다. 상황을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일반적 원리가 있다.
  - 첫째, 상황이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결말이 나고, 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주제를 선택하건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둘째,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학급의 특정 학생과 관련된 주제는 피해야 한다.
  - 셋째, 상황이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 즉, 역할놀이의 상황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때로는 역할놀이에 앞서서 사전 연구나 독서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 **역할놀이 준비** 역할놀이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측해서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솔직히 말해도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솔직한 반응이 선생님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상황의 도입: 학생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이야기와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

며, 역할놀이를 하게 될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언제 화가 나고 슬펐는지 등을 기억하게 하며, 역할놀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말해 보게 한다. 즉, 학생들이 이야기 속의 인물의 이미지와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창조하게 된다.

- 장면의 설정: 실제 역할놀이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장면 설정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경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계획 수립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화를 준비하여서는 안 된다. 교사는 역할자들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어야 하고, 소품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으며 간단한 것을 이용하면 된다.

- **역할놀이 실연자 선정** 역할놀이 참가자를 선정할 때, 교사는 관련 인물과 동일한 말을 하거나 수행할 역할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처음 시행할 때는 지나치게 성인 지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해결을 내리는 학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역할을 맡길 때, 교사는 엄격한 아버지, 짓궂은 형과 같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역할을 지시할 수도 있다. 때로는 역할놀이를 싫어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참여하도록 하는데,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학생에게 교사는 용기를 주어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다.
- **청중의 준비** 역할자가 정해지고 역할 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교사는 나머지 학생들이 능동적인 관람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결국 역할놀이에 참가하는 학생과 청중 모두가 역할놀이의 경험으로부터 함께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람 학생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결점만 지적하거나 부주의하고 단 생각을 하게 되어 결국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을 주의 깊고, 예의바르고, 반응적이고, 방심하지 않는 관객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중들은 보고들은 것을 기억하여 정확히 진술할 수 있으며, 보고들은 것을 해석하고, 자신이 설정한 준거에 따라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역할놀이의 실연** 학생들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여 역할놀이의 상황을 생생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역할놀이의 초점은 역할 수행의 질이 아니라 역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능숙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지 말고, 도중에 자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역할놀이 실행에서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지나치게 조바심을 하거나 당황해 함으로써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하면, 놀이를 중단하여 간단히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한 후, 학생들에게 놀이의 목적과 내용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역할에만 몰두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면, 잠시 그 학생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기 차례와 왔을 때 의사를 표현하도록 지시한다.

셋째, 역할을 연기하던 학생이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거나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시간, 장소 등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연기를

하면 잠시 놀이를 중단시키고, 원래 주어진 상황과 인물의 배경, 느낌 등을 상기시킨다.

넷째, 관람하는 학생 중에서 연기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하는 학생이 발견되면, 그 학생에게 놀이가 끝난 후에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줄 것을 약속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역할을 하던 학생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즉시 중단시키고, 그 학생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질문하여 역할놀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적합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면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연기를 중단시킨다.

일곱째, 학급 전체가 지나치게 산만해지고 떠들썩해지면 놀이를 끝내고, 왜 학급의 행동이 무질서해졌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 이때 학생들에게 역할놀이를 잘 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여덟째, 학생들이 더 이상 의견이나 느낌을 제시할 수 없는 막다른 상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자신이 하는 역할에 몰두되어 버린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역할을 바꾸어 보도록 한다.

아홉째, 학급이 지루해 하거나 산만해지면 놀이를 짧게 끝내도록 한다.

열째, 연기하는 학생들이 역할놀이의 구체적인 점들에 대해 혼란을 느끼거나 주어진 인물의 성격에 대해 모호성을 느끼는 경우에 다시 시행해 보도록 한다.

- **역할놀이 실연에 대한 토론과 평가 및 재연** 일단 한 차례 역할놀이가 끝나면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통찰력을 다음 역할

놀이 활용하게끔 한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역할 수행자도 관람 학생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동료에 의한 바람직한 행동이 강화되고 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관찰자와 역할 수행자가 함께 생각하도록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 재연할 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새로운 역할자에 의해 상황이 재해석되며, 첫 번째 주어졌던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역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연이라고 되는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할놀이 방법을 간단한 상황 장면을 이용한 것과 복잡한 상황 장면을 이용한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간단한 상황 장면을 이용한 역할놀이

- 성연이는 어제 새 컴퓨터 게임 CD를 샀다. 성연이네 놀러 온 새 터민 친구인 민정이가 그 게임 CD를 자기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한다. 이 때 성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영수는 극장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영수 바로 앞에는 시각 장애인 친구가 서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힘이 세어 보이고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시각 장애인 친구 앞에 끼어들었다. 이 때 영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우리보다 두 살이나 더 많은 새터민 학생이 오늘부터 우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 학생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A군(15세)이 아파트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아파트 옥상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두들겨 맞았다.”며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A군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여러분이 A군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올해 겨울에 국제학생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번 포럼에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정부와 아동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초청된다. 그들은 이슬람교도이고, 우리가 포럼을 실시하는 기간은 그들의 라마단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럼 중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깨끗한 공간에 기도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식기류는 돼지고기 음식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며,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새벽 4시에 음식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들의 숙소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포럼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겠는가?<sup>129</sup>

복잡한 상황 장면을 이용한 역할놀이

#### 태수의 눈물

태수는 지난 해 부모님께 함께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오게 된 새터민 친구입니다. 토요일 오후, 태수는 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병철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철이는 친구들과 야구하러 가고 없었습니다. 태수는 문득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교실에 돌아와 보니,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가자,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지만, 친구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만 하였습니다. 태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반 친구들은 벌써 야구 경기에 한창이었습니다. 태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나만 빼놓고 너희끼리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친구들은 모르는 척하고 야구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태수는 한 마디 대답해 주는 친구조차 없어 섭섭하였습니다. ‘모두가 경기에 열중하느라 한눈팔 겨를이 없겠지.’ 태수는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비편과 공격편이 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병철이가 태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태수야, 정말 미안

129\_ 국가인권위원회,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5, p. 189.

해.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 너하고 같이 야구하기 싫다고 해서…….” 태수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화를 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야구하기 싫다는 거니?” 그러자 성질이 급하고 힘이 센 명석이가 말했습니다. “야! 새터민 주제에 누구하고 같이 놀려고 그래. 못사는 북한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지!” 그제서야 태수는 친구들이 일부러 자기를 따돌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울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고, 엄연한 대한국민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을 노려보던 태수는 운동장으로 달려가 땅에 있던 야구공을 집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명석이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운동장은 곧 명석이와 태수의 싸움터로 변해 버렸습니다. 병철이와 다른 친구들이 달려들어 한 덩어리가 된 두 친구를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들하고 다시는 안 놀테야.” 흠투성이가 되어 일어난 태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번갈아 닦았습니다. 친구들은, 울면서 혼자 돌아가는 태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태수를 따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병철이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처: 한겨레신문, 2007년 8월 10일자.

## 7 유추(analogy)

유추란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내고, 이미 알고 있는 특수 사실과 비교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유사한 측면을 찾아내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 내는 것을 뜻한다.<sup>130</sup> 유추는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창의, 즉 아이디어 생성이란 결국에는 여러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시키거나 조합시켜야 생성해낼 수 있다. 유추는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아니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렇듯 유추는 현재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사례를 통하여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

130\_ 김수임, “유아의 유추추론 발달과 창의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15(2), 2006, p. 81.

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피상적으로 다른 두 대상의 상황의 내적 유사성을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유추는 기존의 지식 구조, 즉 자원을 새로운 지식의 구조, 즉 표적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전형적으로 표적에 대한 불완전한 기술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유추의 첫 번째 단계는 장기기억으로부터 가능성 있는 자원을 인출하는 재인 과정인 것이다. 자원이 인출되면, 이것의 타당성이 평가되고, 자원의 관련 양상들로 표적을 채우는 과정, 즉 정교화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적의 기술들은 차후의 인출을 위하여 기억 속에 공고화되어 저장된다.<sup>131</sup>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유추는 매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학생들을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 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다양한 유추를 활용함으로써 평화, 인권, 비폭력, 관용 등과 같은 학생들에게 다소 추상적인 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추의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교사는 유추를 위한 과제를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고양할 수 있다.

131. 최경숙·김민화, "유추를 통한 지식 창출 과정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 5호, 2002, p. 83.



- 남북한 분단과 별거 부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폭력적인 사람과 바람이 빠진 자전거 타이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평화로운 사람과 맛있는 피자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다문화 사회와 아름다운 정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과속 운행 중인 자동차와 성미 급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잔인한 테러리스트와 침몰 중인 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관용적인 사람과 잘 익은 토마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남북통일과 결혼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다문화 사회와 비빔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통일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남북 분단과 가시가 있는 선인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민족과 발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8 마인드맵(mindmap)

평화교육은 어떻게 하면 폭력적인 사회의 영향을 줄이고 평화적인 사회의 모습과 인간관계를 심어줄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가시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과 환상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에 우리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의 이미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역동적인 평화의 비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132</sup> 이렇게 볼 때,

<sup>132</sup> 홍순정, 앞의 책, p. 15.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마인드맵은 매우 유용한 지도 방법이다.

마인드맵은 1970년대 초 영국의 부잔(Buzan)이 개발한 학습과 기억의 새로운 방법이다. 마인드맵은 이미지와 핵심 단어, 색과 부호를 사용하여 좌우 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두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고력 중심의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다. 즉,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란 뜻으로 무순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종이 한가운데에 이미지로 표현해 두고 가지를 쳐서 핵심어, 이미지, 색상, 기호, 상징 등을 통하여 방사형으로 펼침으로써 사고력, 창의력 및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방법이다.<sup>133</sup>

이렇듯 마인드맵은 두뇌에 저장된 사고를 마치 비디오가 영상을 재현하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표현 방식과 달리 두뇌의 잠재력, 즉 좌뇌 기능과 우뇌 기능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이를 그래픽 기술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의 모든 면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인드맵의 간략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중심 이미지에서 구체화된다. 둘째, 중심 이미지에서 나뭇가지처럼 방사형 모양으로 소주제가 가지선상에 뻗어나간다. 셋째, 이렇게 연결되는 가지들은 핵심 이미지와 핵심어로 구성되고 있다. 넷째, 가지는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취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의 간략한 규칙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33\_ 정인철, “마인드맵, 컨셉트맵 그리고 브이맵과 수학학습”,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9(2), 2006, p. 388.

(1) 준비물

백지(줄이 쳐 있는 종이는 생각을 펼치는 데 제한을 주므로 백지를 준비한다.)

색펜(일반적으로 주가지의 수만큼 준비한다. 보통 5색 이상)

(2) 백지 표면의 전체 공간을 풍경화를 그릴 때처럼 자유롭게 사용한다.

(3) 지면의 중심부터 시작하고, 종이는 가로로 길게 펼쳐 놓는다.

(4) 쓰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핵심 이미지를 종이의 중심에 그림으로 시작한다.

(5) 이미지의 중심에서 가지를 하나씩 쳐나간다. 이 가지 위에 단어, 그림 또는 심벌을 그리거나 이들을 혼합해서 각 위치에 올려놓는다. 이미지와 연결된 쪽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지보다 두껍고, 선의 형태는 팔이 몸에 붙어 있듯이 혹은 나무 몸통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해주어야 한다.

(6) 주제로부터 부주제로 차례로 뻗어 나간다. 이들도 선으로 연결하지만, 가는 선이어야 한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평화를 주제로 한 초등학교의 마인드맵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학생들



## 9 시뮬레이션 게임

평화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갈등적인 정보와 사회적 딜레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134</sup> 평화교육자는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략에 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폭력으로 이끄는 환경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는 실생활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평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은 학생들에게 실세계의 역할을 부여해 주고 게임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실세계 상황에 처처럼 어떤 결정을 해 보도록 요구하는 학습 활동이다.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러한 실제 세계를 모방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여러 가지 경험적인 교수 기법들(역할 놀이, 가치 명료화, 소시오 드라마) 가운데 하나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학교 밖의 현실과 관련시켜 주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준다.

시뮬레이션 게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게임(game)은 사람들이 일군의 규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경쟁이다. 게임에는 목표와 규칙이 들어 있다. 야구 경기나 장기에서 참가자들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또한 게임은 일반적으로 재미가 있으며, 승패

134- I. Hakvoort, *Op. Cit.*, p. 19.

가 가려진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재(현실)의 어떤 측면들에 대한 모방 혹은 단순화이다. 시뮬레이션을 잘 이해하려면 미국 항공우주국에 설치된 무중력실과 그 안에서 뚱뚱 떠다니며 일하고 있는 우주인을 상상하면 된다. 이것은 무중력 상태의 실재를 모방한 것이다. 한편, 시뮬레이션은 실재에 대한 선택적 표상 혹은 단순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의국회를 할 때 입법 과정의 모든 측면이 재현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그 설계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실재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된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게임의 특성과 시뮬레이션의 특성을 결합한 활동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재의 일부분을 모방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게임은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미있고 교육적인 활동이다.<sup>135</sup>

교실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시뮬레이션은 역할 놀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역할 놀이와 시뮬레이션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역할 놀이가 반드시 시뮬레이션인 것만은 아니다. 한 학생이 교실에서 경찰의 역할을 실연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학생은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황을 모델로 하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행된 역할이 실세계의 과정이나 체계의 기능을 표상하고, 그것에 상응 혹은 병행하는 역할 연기를 했을 때에만 그 역할 놀이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시뮬레이션 게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뮬레이션 게임은 의사소통 기능과 대인 관계적 기능들을 발달시켜 준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타협과 설득 혹은 타협과 설득의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의 대인 관계는 아주 심층적인 수준에서

135.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4, p. 578.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필요한 기능들을 숙달할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혹은 문서상의 의사소통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문제 해결 기능을 숙달할 수 있으며, 이미 배운 지식들을 실세계에 적용해 보는 전이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하여 사회 체계 혹은 현실의 복잡함과 증대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복잡한 환경과 이슈 속에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체험해 봄으로써 사회 체계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실연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나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들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향후 자기 행동을 강화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의 실행 절차는 게임의 준비, 실행, 토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preplaying)** 수업에서 실행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교사는 먼저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해야만 한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며 참가자들이 실제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 대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게임의 절차를 참가자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게임의 목표와 규칙 등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교사는 게임의 실행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교사는 몇 명의 관찰자를 선정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행(enactment)**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교사가 통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 학생들은 게임을 그릇된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혹은 게임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참가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파악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교사가 개입하여 지나친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것은 학생들의 게임에 대한 주체 의식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하면서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 **결과 토의(debriefing, postgame discussion):** 게임을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게임에 대한 추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식별 함으로써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의하면 게임을 실시한 후에 이루어지는 결과 토의가 게임의 실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경험을 분석·비교 해 보고,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반추해 보고, 자신의 감정과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결과 토의를 하는 동안에 참가자들이 제시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교실 밖의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척도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결과 토의에서는 게임에서 어떤 일이 생겼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보는 활동, 게임의 실행 동안에 제기되었던 주요 이슈나 핵심 개념들의 의미를 분석해 보는 활동, 게임의 상황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인과적으로 분석해 보는 활동, 경험의 일반화를 모색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것



이 바람직하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36</sup>

## 실행 방법

### … 활동 개요

남북한이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된 우리나라도 환경 오염 및 에너지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통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통일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은 통일 국가의 대통령(교사)에 대한 자문가 집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이 맡게 될 8개의 역할놀이 집단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부, 교통부, 자동차 생산 협회, 정유회사 로비 조직, 환경 보전 단체, 관심 있는 시민 집단, 태양력 에너지 로비 조직, 원자력 에너지 로비 조직.

학급 구성원들을 소집단으로 나눈 후에, 여러분은 위에 제시된 8개의 집단 역할 가운데 하나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 집단에 부여된 ‘활동 지침’과 ‘역할 카드’에 따라서 의사 결정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 … 활동 지침

여러분이 소속된 집단은 하나의 역할과 그에 대한 정보를 부여받게 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결정 및 실행에 달려 있다. 여

<sup>136</sup> 이 자료는 미국의 세계교육연구센터(www.globaled.org)에서 개발한 것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임.

러분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일 국가의 대통령인 선생님에게 제시하는 다른 모든 집단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통일 국가의 연구 및 개발 예산이 다음의 각 분야에 편성되어야만 하는가?

- 국내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와 대륙붕에서의 원유 추출
- 천연 형태 혹은 가스나 액화 형태로서의 석탄 사용의 증가
-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확대
- 지열 에너지의 사용
-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풍력, 수력, 태양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 포괄적인 에너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집단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에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집단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어떤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을 설득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집단의 다른 자문위원들과 만나서 우선 집단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집단의 다른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집단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만나 여러분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설득해야만 한다. 대통령을 처음 만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집단의 명칭, 자문위원들의 이름, 여러분 집단의 결정 내용과 그 근거 자료, 연구에 활용한 참고 문헌들을 수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집단은 순서대로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교사)은 자신의 최종 결정 사항을 공표할 것이다. 각 집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역할 수행 능력, 설득 능력 및 근거 자료의 신빙성, 사용된 정보의 정확성, 시간 준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역할 카드

의사 결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부: 2007년에 만들어진 에너지부는 에너지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에너지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는 통일된 우리나라의 원유 의존도에 대한 최신 통계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 ② 교통부: 교통부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교통부는 수송 산업(자동차, 철도, 에너지)으로부터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교통부는 이러한 이해관계들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교통부는 도로의 제한 속도 80km를 에너지, 안전, 자동차 생산 업체의 요구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
- ③ 환경보전 단체: 환경보전 단체는 에너지 사용의 축소와 기존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나무, 원자력 에너지)에 의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보전 단체는 이러한 에너지원들의 추출·수송·사용에서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 ④ 정유회사 로비 조직: 정유회사 로비 조직은 국내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사용을 대폭 증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유회사 로비 조직은 입증된 가용 자원량, 더욱 개선된 품질, 소비자 및 경제에 주는 가치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⑤ 자동차 생산 협회: 자동차 생산 협회는 승용차 및 트럭으로부터 많은 이윤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협회는 정부로부터의 규제를 적게 받는 가운데 경기가 계속 호황

이기를 바라고 있다. 자동차 생산 협회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입증시켜 줄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 ⑥ 원자력 에너지 로비 조직: 원자력 에너지 로비 조직은 원자력 발전에 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기업의 대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더욱 늘리는 데 있다. 이 조직은 원자력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줄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 ⑦ 관심 있는 시민 집단: 이 집단은 어느 입장이나 자유로이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객관적일 필요가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해 내야만 한다.
- ⑧ 태양력 에너지 로비 조직: 이 조직은 태양력 에너지 기술의 분권화를 도모하고, 태양력 에너지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논박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 조직이다.



■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교사  
출처: 조선일보, 2007년 1월 5일자

### ... 결과 토의

- 오늘날 정치 지도자, 일반 시민, 환경 단체들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통일된 국가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0 갈등해결 교육

평화교육은 사람들에게 평화적 조건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사람들에게 인간적 갈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기능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평화교육의 기저에 놓여 있는 기본 가정은 만약 시민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폭력의 방식을 폐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평화교육자인 해리스는 평화교육자는 학생들의 두뇌를 매력적인 평화의 이미지로 채울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평화교육자는 학생들이 장차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등의 복잡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비폭력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두뇌속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해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갈등해결 교육은 학생들에게 탄력(resilience)의 발달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하는 전통적인 훈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 또한, 갈등해결 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적·감정적 능력 발달과 학업 성취를 향상시켜 준다. 갈등해결 교육은 기물 파괴, 폭력, 결석, 낙제를 줄임으로써 건강한 학교 풍토에 기여한다. 해리스는 자기 나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 리더십 행사를 부여받은 학생은 통제 집단의 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비폭력적이었다고 말한다. 갈등해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덜 공격적이고, 더욱 친사회적이었다고 말한다.<sup>137</sup> 이렇듯 갈등해결 교육은 오늘날 대표적인 평화교육 방법

137. I. Harris, "Challenges for peace educator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cial alternatives*, 21(1), 2002, 28-31.

으로 통용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갈등나무 그리기<sup>138</sup>

#### ... 활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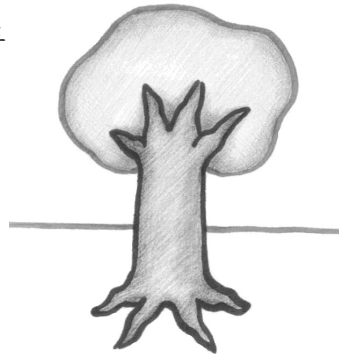
- 참여 인원: 30명 내외
- 장소: 실내
- 소요 시간: 1시간
- 준비물: 화이트보드, 포스트잇, 필기도구

#### ... 주요 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갈등을 핵심 문제, 원인, 결과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보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 진행 과정

- 커다란 종이나 화이트보드에 나무의 뿌리, 몸통, 가지 등을 그린다.



138. 구호진, 평화교육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3-35. 및 최창욱·김정주·조영희,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p. 62의 내용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성격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임.

- 각 참가자들에게 몇 장의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나누어주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남남 갈등의 핵심 문제를 지시하는 한두 단어나 상징 혹은 그림을 그리게 한다.
- 각자가 작성한 내용을 나무에 붙이도록 한다. 단, 나무 줄기에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뿌리에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에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 붙이도록 한다.
- 나무에 다 붙이고 난 후, 진행자를 뽑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 핵심 문제가 합의되면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결시켜 개입의 우선 순위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인, 결과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유의 사항

- 핵심 문제, 근본 원인, 초래될 결과, 개입해야 할 중요한 문제 등은 정답이 없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교사는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관시키고 핵심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각 문제들 중 해결, 개입의 우선순위를 학생들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 대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비폭력 대화 기술을 익히면 습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역시 경청하면서 정중하고도 솔직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게 된다.<sup>139</sup> 비폭력 대화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40</sup>

첫째,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곧 나한테 유익하던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비결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부를 떠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둘째,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비폭력 대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고 솔직히 표현할 때에는 이 세 요소에 대한 의식이 그 안에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이 세 요소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철수야, 네 책상 주변에는 늘 내가 버린 휴지가 너무 많아! 그걸 볼 때마다 짜증인 나는 너무 짜증이 나거든. 나는 여럿이 함께 쓰는 교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학생은 네 번째 요소인 구체적인 부탁 사항을 말한다.

“앞으로 휴지는 바닥에 버리지 말고 교실 뒤편의 쓰레기통에 넣어 놓을 수 있겠니?” 이 네 번째 요소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

139\_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서울: 바오출판사, 2004, p. 19.

140\_ 위의 책, pp. 22-23.



## 비폭력 대화 모델의 4단계

1.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한다.
2. 관찰한 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한다.
3.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욕구**, 가치관, 소망 사항을 찾아낸다.
4.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비폭력 대화는 이 네 가지 정보를 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의 다른 한 측면은 상대방에게서 똑같은 네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바라는가를 분별하고, 그들의 부탁을 통해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는 학생들

## 비폭력 대화

☞ 다음의 설명을 잘 살펴보고 난 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자신의 짝, 또는 친구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짝이나 친구의 말과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동만을 관찰합니다.

1. 자신이 관찰한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관찰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2.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느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보세요(기쁨, 즐거움, 슬픔, 짜증 등의 느낌이 들어가게).

3. 위에서 자신이 표현했던 느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고 어떠한 것을 원했던 것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보세요(예를 들어 쓰레기를 교실에 버리는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였을 때- '나는 여럿이 함께 쓰는 교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 등).

4. 우리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기 위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부탁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행동을 이야기해 보세요.

## I-message 사용하기

I-message, 즉 나-전달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전달법의 활용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직하게 개방하도록 용기를 준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 수동적으로 되지 않게 한다.<sup>141</sup>

### ○ 나-전달법의 3요소

-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무엇인가?
- 그 행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 나는 그 결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 ○ 나-전달법의 방법

- 비난 없는 행동을 서술하고
-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 내 느낌을 전달한다.

### ○ 나-전달법의 사례

- “여자애가 뭐 한다고 이렇게 밤늦도록 싸돌아다녀? 좀 일찍 일찍 다녀!”
  - ☞ 네가 늦도록 안 들어오니 엄마는 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단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었니?

141\_ 구호진, 앞의 글, p. 55.

○ 나-전달법의 연습을 위한 과제

-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전달법에 맞도록 할 말을 적어보고, 2인 1조가 되어 친구와 대화하여 봅시다.
  - ☞ 친구와 영화구경을 가기로 했다. 늦어도 6시까지는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친구는 30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 ☞ 늦게까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숙제할 내용이 많아서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갔다. 그런데 동생은 친구들과 집 안을 온통 어지럽혀 놓았고, 지금은 태연히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다.
  - ☞ 이번 주 주번이어서 내가 맡은 복도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이 뛰어 오고 있다. 뛰지 말고 걸어가라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며 따지듯이 대든다.
  - ☞ 주연이는 관진이의 동화책을 빌려 갔는데 되돌려 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이 때 관진이는 주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 하늘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예찬이가 자꾸 그 공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때 하늘이는 예찬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 안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피부색이 매우 까만 편이다. 영국이는 안수를 만날 때마다 “코시안” 이라고 놀려댄다. 이 때 안수는 영국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 선경이는 또래들에 비해 몸집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운이는 선경이를 볼 때마다 “토종 돼지” 라고 놀려댄다. 이 때 선경이는 운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 덕영이는 상체에 비해 하체가 매우 짧은 편이다. 반 아이들은 덕영이를 볼 때마다 “숫다리 나오셨네?” 하고 놀려댄다.

이 때 덕영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민철이는 새터민 가족이라 북한 사투리를 많이 쓴다. 민철이가 말을 할 때마다 반 아이들은 까르르 웃어대며 “북한 촌뜨기” 라고 놀려댄다. 이 경우 민철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 11 체험 학습

해리스(Harris)는 평화교육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행동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sup>142</sup> 많은 평화교육 학자들은 평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념학습과 체험학습이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sup>143</sup> 따라서 “행하면서 배운다.”는 체험학습의 기본 모토는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체험 학습은 한 개인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자기 반성적 사고로 성찰하고 스스로의 행위 분석과 통찰력을 개발하여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하여 나아가는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체험학습에서는 학습의 의미를 체험의 변형을 통하여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체험 학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sup>144</sup>

첫째, 체험학습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다. 지식이나 아이디어

142- I. Harris, “Conceptual underpinnings of peace education”, In G. Solomon & B. Nevo (Eds.), *Peace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p. 23.

143- E. Staub, “From healing past wounds to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caring: Contents and processes of peace education”, n G. Solomon & B. Nevo (Eds.), *Peace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p. 74.

144- 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pp. 26-36.

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형성·재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학습은 체험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학습자의 체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검증되는 것이다. 셋째, 학습의 과정은 변증법적으로 반대되는 ‘세계에 대한 적응 방식’ 간의 갈등 해결을 필요로 한다. 넷째, 학습은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적응 과정이다. 다섯째, 학습은 인간과 환경 간의 교류를 포함한다. 여섯째, 학습은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한편 체험학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도성, 구조성, 맥락성을 지녀야 한다.<sup>145</sup> 체험학습은 분명한 동기와 목적 의식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결집시키고 주체적인 의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체험학습은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의 연계 및 새로운 경험 요소들 간의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체험학습은 학습 내용이 배태된 맥락에 대한 이해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에서 많이 행해져 왔었던 현장 학습은 체험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통일교육에서 체험 학습은



■ 비장애 체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출처: 대진일보, 2006년 4월 12일자

지나치게 안보교육 분야에 국한된 점이 없지 않았다. 통일전망대, 판문점, 전쟁 기념관 등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의 의지를 함양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화 능력의

145\_ 양미경, “체험학습의 의미 및 조건의 탐색과 예시 자료 개발”, 『교육학연구』, 2001, 39(1), pp. 181-183.

함양을 위한 체험 학습은 매우 소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평화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들을 예시하고자 한다.

## 분단 체험

학생들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방법은 교실에서 남북 분단의 실상과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 실행 방법

- 교실 안을 남과 북으로 나눈다.
- 하루 동안 남한과 북한이 되어 정해진 구역에서만 생활해보게 한다.
-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일체 접촉을 금지한다.
- 종례 시간에 느낀 점 나누기 시간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 ... 실행 규칙

- 교실을 2등분 하고, 학생들도 2팀으로 나눈다.
- 북쪽에 있는 학생들은 앞문만을 사용할 수 있고, 뒷문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뒷문만을 사용할 수 있고, 칠판과 앞문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남쪽과 북쪽 학생들은 서로 말도 해서 안 되고 경계선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 또한 교실 안의 시설물도 자신의 팀의 영역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판은 북쪽 학생들만, 게시판과 사물함 등은 남쪽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다.
- 남팀과 북팀 간의 대화 금지, 접촉 금지 등의 규칙은 하루 종일 꼭 지키도록 한다.
- 규칙을 어길시 교실 내에 정해진 감옥에서 10분간 지내는 벌칙을 받는다.

… 기대 효과

- 하나이던 교실을 반으로 쪼개어 교실 안의 시설물을 일부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분단된 한반도의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 친구들과도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같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 체험 후 느낀 점 나누기를 통해 얻은 지식을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 확대 적용시켜 분단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 해주 비빔밥 만들기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법으로서 체험학습에서는 남북한의 ‘같음’을 찾아 확대 발전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같음’을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부여해 주어야 한다. 해주 비빔밥 만들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시식해 봄으로써 북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전주 비빔밥과 매우 흡사하다는 동질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개요

- 준비물: 비빔밥 재료, 조리법
- 소요 시간: 2시간
- 참고자료: KBS 아름다운 통일(<http://tongil.kbs.co.kr>)  
한국전통음식연구소(<http://www.kfr.or.kr>)

... 주요 내용

- 교사는 TV 프로그램 시청(KBS 아름다운 통일)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 음식에 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조리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해주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시식해보는 활동을 갖는다. 교사는 북한 음식 중 해주 비빔밥은 우리의 전주 비빔밥과 매우 유사한 것임을 인식시킨다. 또한 교사는 활동 자료를 통해 북한 음식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하게 한다.

... 도움 자료

- 해주 비빔밥이란?

해주의 특산 음식인 해주비빔밥은 밥 위에 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들을 얹어서 만드는 음식이다.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반드시 두며 밥을 볶아서 쓰는 것이 특징이다. 해주교반이라고도 부른다.



- 준비물: 흰쌀 150g, 닭고기 50g, 고사리 30g, 도라지 30g, 미나리 30g, 녹두나물 30g, 송이버섯 30g, 달걀 1개, 김 1/4장, 기름 20g, 깨소금 3g, 간장 10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1g, 설탕 3g
- 조리 순서
  - ① 흰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되직하게 짓는다.

- ② 닭고기는 삶아서 가늘게 찢어 양념에 무치고 국물은 간을 맞춘다.
- ③ 녹두나물은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뺀 후 간장, 채친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루가루, 기름을 두르고 무친다.
- ④ 삶은 고사리와 도라지는 삶아서 채반에 건져서 물기를 지운다. 송이는 씻어서 길이로 얇게 썬다.
- ⑤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도라지를 넣고 볶으면서 간장, 깨소금을 넣고 간을 하여 더 볶는다. 고깃 국물을 반국자 정도 넣고 잘 섞은 다음 뜸을 들이다 다진 마늘과 파를 넣고 다시 볶는다. 고사리와 버섯도 도라지 나물과 같은 방법으로 따로 따로 볶는다.
- ⑥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밥을 볶으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⑦ 볶은 밥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닭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을 보기 좋게 색을 맞추어 놓은 다음 구워서 부스러뜨린 김과 달걀지단으로 놓는다.

... 학생용 활동 자료

북한 해주지방의 ‘해주 비빔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주 비빔밥과 전주 비빔밥을 비교하여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공통점

---

---

---

---

---

---

---

---

차이점

---

---

---

---

---

---

---

---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인쇄일** 2007년 11월

**발행일** 2007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전화 02-2275-5326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비매품〉

